소년단

1963. 5

— 전국 학과 경연 대회에서 —

지나번 민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 학과 경연 대회에는 공화국 각지의 많은 학교 분단 단체들과 소년단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동무들은 학생들의 첫째 가는 임무는 공부를 잘 하는 것이라고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명심하고 꾸준히 다져 온 학습 실력을 남김 없이 나타내여 많은 동무들이 입상의 영예를 지녔다.

그 중 중등반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한 동무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앞줄.

박 수렵—함남도 리원군 차호 중학교 단 제 1 분단

김 철순—개성시 발산 중학교 단 제 1 분단

최 학선—함흥시 반룡 중학교 단 제 10 분단

가운데 줄.

장 국남—평남도 남포시 해방 중학교 중등반 3의 1

김 송길—평남도 남포시 서해 중학교 단 제 1 분단

신 준환—평남도 신암군 운례 중학교 단 제 1 분단

박 수봉—황남도 해주시 해단 중학교 단 제 10 분단

뒷줄.

김 승규—자강도 희천군 전평 중학교 중등반 3학년 3반

장 경선—평북도 운전군 학신 중학교 중등반 3학년 1반

정 재무—평양시 창전 중학교 단 제 2 분단

조 춘영—함남도 오로군 오로 1중학교 중등반 2학년 1반

《소년단》 1963년 5호 내용

김일성 원수님의 창덕학교 시절

(2 회)

강 효순　　　　　　　　　　　　그림 최 순천

작년 겨울 어느 날 아침이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김 선생을 찾아 왔습니다. 알고 보니 강 건너 조선 땅 포삼리에 있는 분인데 남편이 병이 위급하여 약을 가지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약 값을 장만해 오지 못 했으니 외상을 달라는 것입니다.

김 선생은 병 증상을 자세히 물은 후에 약을 지어 주면서 래일 다시 와 병 증상을 이야기하고 또 약을 지어 가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약을 가지고 돌아 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해가 지도록 그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의 생각으로는 어제 보내 준 약만 쓰고는 벌써 완치되였을 상 싶지 않았습니다. 필경 약 값을 장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으로 짐작이 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였습니다. 김 선생은 약을 지어 가지고 나루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 갈 잡두리였습니다. 그런데 나루터에 나가 보니 지난 밤에 날씨가 추워서 강이 얼어 붙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얼음 우를 건너 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강이 든든히 얼었는지 혹시 약하게 얼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김 선생은 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 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가 누워서 고통을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그 대로 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김 선생은 선창 집에 가서 긴 장'대 하나를 얻어 가지고 얼음 우를 건너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은 쩡쩡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김 선생은 위험을 무릅쓰고 얼음 우를 간신히 건너 갔습니다.

김 선생은 환자가 있는 로인네 집을 찾아 갔습니다. 선생의 추측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제 보내 준 약을 쓰고 약간 차도가 있기는 하나 아직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약 값도 없이 어떻게 또 가겠느냐고 하면서 요행 나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가지고 간 약을 드리고 돌아 왔습니다. 이렇게 1 주일을 계속 찾아 다니며 병을 치료해 주어 완전히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의 기쁨이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1 주일 간 계속 왕진을 하고 약을 주었으나 약 값은 한 푼도 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선생은 생각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받으려니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약 값을 얼마간 마련해 가지고 병원으로 찾아 왔습니다. 그는 약 값을 계산하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김 선생은 그에게서 한 푼의 약 값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국수를 받아다 점심을 잘 대접해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 미안해서 몸 둘 곳을 몰라 쩔쩔 맸습니다.

그는 원수님을 알아 보자 매우 기뻐하며 아버지는 무고하냐, 어디를 가느냐, 자세히 물었습니다. 평양에 간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니 두루마기 오주락을 들치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담배쌈지 같은 주머니를 꺼내여서 거기서 10 전 짜리 백동전 두 개를 꺼내 원수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약소하다만 가다가 엿이라두 한 가락 사 먹어라.》

《아니올시다. 로자를 넉넉히 가지고 떠났습니다.》

《허! 로자가 모자라서 주는 줄 아냐, 내가 섭섭해서 주는 게니 어서 받아라.》

《아니올시다.》

원수님은 펄쩍 뛰였습니다.

《어른들이 주는 건 받아야 해.》 하며 할아버지는 원수님이 들고 가던 보자기 틈에 돈을 넣더니 두루마기 바람을 휭하니 내며 가 버렸습니다. 원수님께서 돈을 꺼내 들었을 때에는 벌써 그 로인은 퍼그나 갔을 때였습니다.

그 분은 뒤를 흘깃 돌아 보더니

《어서 가거라 가!》 하면서 손을 젓는 것이였습니다. 그 분의 태도를 보아 돈을 다시 받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은 로인의 뒤'모습을 한 동안 바라보시다가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2)

원수님께서는 계속 며칠을 걸었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의 산'봉우리들에는 소나무들이 우거졌고 골짜기로는 맑은 물이 소리치며 흘렀습니다. 산판에 아름다운 꽃들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은 사시 장철 푸르러 있는 소나무 빛갈이 아주 무게 있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 산 속에서 노래하는 고운 새들, 이리저리 뛰놀 각종 짐승들 그리고 만지기만 해도 푸슬푸슬 부스러지는 흙덩이와 길'가의 돌멩이 하나도 무심히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저것들까지 모두 합쳐서 우리 나라가 되였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흐뭇해졌습니다.

원수님이 산'굽이를 돌아 언덕 마루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길 옆 잔디밭에 한 가족처럼 보이는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이나 걸었는지 매우 피곤해 보였습니다. 남편인듯한 사나이의 짐에는 해여진 이불'짐과 남비니 바가지들이 달려 있고 부인인듯한 아주머니의 짐에는 자루 속에 울룩불룩한 것과 그릇개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는 젖먹이가 업혀 있었고, 남자의 옆에는 5~6 세 가량 되여 보이는 남자 애가 송기를 씹고 있었습니다.

(만주로 들어 가는 사람들이로구나!)

원수님은 대번에 이렇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짐들을 지고, 이고 팔도구 나루를 건너 가는 사람들을 날마다 보았기 때문이였습니다. 정든 제 나라 제 고장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 산천을 버리고 산 설고 물 설은 남의 나라로 떠나 가는 그들이 한 없이 가엾었습니다. 어쩐지 원수님은 그들과 이야기라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원수님은 다리도 쉬일 겸 그들 곁으로 가서 보따리를 놓고 잔디 우에 앉았습니다. 사나이는 말 없이 계속 담배만 피우고 있는데 담배 연기가 아니라 쑥 냄새만 사뭇 풍겨 왔습니다.

《먼 길들을 떠나신 모양이시구만요》

하고 원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다. 내사 경상도서 만주로 가는기다.》

부인이 어린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만주에서 고향으로 나가던 길입니다.》

만주라는 말이 나오자 그들은 귀가 솔깃하는 모양인지 일시에 원수님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만주서 고향으로 가능기라! 고향이 어데멩가?》

《평양입니다.》

《평양? 돈 많이 벌었능기다.》

남자는 쑥 담배를 메투리에 툭툭 털더니 부인을 바라보며

《봐라! 늬 다리 아프다꼬 앙탈 되하더니 돈 벌어 가꼬 고향 가능거 뵈지 않능가.》하며 부인을 바라보는 것이였습니다.

《늬 고향에 있음 이 좋은 구경 해 봤겠능가 의?》

《아따 그럼 늬 구경 떠났노? 내사 서울 구경 딱 싫더라, 우리 농군은 죽도 못 먹는데 서울 량반 편편히 놀며 이밥 먹구 차 타구 다니는 꼴 딱 보기 싫더라.》

그들은 어찌 떠들어 대는지 꼭 부부 싸움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의 이 말에 남편도 동감이였던지 말 없이 다시 담배를 싣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쑥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한 두 모금 빨더니 갑자기 무엇이 생각 나는듯이 원수님을 바라보며

《아따 내 정신 봐라 묻던 말 잊었다. 만주가 살기 좋다꼬들 하능기 참말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원수님은 두 분이 싸움이라도 하면 어쩔가 하고 걱정이였는데 자기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을 보니 다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만주라구 뭐 딴 세상인가요, 거기서도 돈 있는 사람은 살기 좋구 우리네처럼 돈 없는 사람이야 마찬가지지요 뭐.》

원수님은 어른답게 대답했습니다.

《봐라, 늬 돈 없는 인간은 어디 가두 죽능기다. 한사하고 가자 가자 하더니 꼴 좋게 됐다. 복 없는 늬나 내나 어디 간들 씨원한 일 있겠능고?》

부인의 말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되는 분은 그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만주에 땅은 넓다 하지 않능가.》 하고 묻는 것이였습니다.

《땅이야 아주 넓지요. 그러기에 조선 사람들이 만주에 들어 와서는 화전을 일쿠구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다 됐다. 내사 농사를 한 번 실컨 해 보구 죽으면 원이 없겠다. 봐라 땅이 넓다고 하지 않능가.》

남편 되는 분은 그제야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부인을 바라보는 것이였습니다. 부인도 이 말에는 귀'맛이 도는 모양인지 아무 말 없었습니다.

원수님은 만주 형편에 대하여 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머나먼 곳에서 살'길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에게 실망의 빛을 안겨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는 담배 한 대를 다 태우더니 다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불'짐 우에 아이를 올려 놓더니 곁에 있는 짐을 넝큼 들어 부인의 머리 우에 이워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 와 아이 올라 간 짐을 지고 일어 섰습니다.

《안녕히들 다녀 가십시오.》

《오, 잘 가게.》

그들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님은 그들의 뒤'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해졌는지 그들은 발'걸음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원수님은 두 분이 하던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인들 어찌 금, 은 보화가 가득 차 있으며 오곡이 무르익으며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제 나라를 두고 쓸쓸한 만주 벌판으로 가고 싶어하겠는가, 그러나 살래야 살 수 없어 이고 지고 그리운 제 고향을 떠났을 것이 아닌가. 부인에게는 될수록 좋게 말하려고 팔도강산을 유람하느니 서울 구경이 어떠니 하였지만은 그의 가슴인들 얼마나 쓰리며 아프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끝 없이 그들의 처자가 딱했습니다.

(하기야 그분들의 처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조선 사람의 처지가 거의 다 그러니까.)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개'길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님은 그 날 해질 무렵에 한 40호 가량 되여 보이는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한복판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덩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둘레로는 게딱지 같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서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길을 따라 기와집 마당으로 들어 섰습니다. 기와집 큰 대문 앞에는 자전거들이 네다섯 대 놓여 있는데 안에서는 왁작 떠드는 소리와 웃음 소리가 한데 섞이여 흘러 나왔습니다.

원수님은 이 마을에서 하루'밤 신세를 질 요량이였습니다. 기와집은 앞채에 사랑'방이 세 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님은 기와집에 가서 신세를 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원수님은 그 집을 지나 맨 끝 집 오막살이 앞에 가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때마침 주인 할아버지는 일하러 나갔다가 방금 돌아 와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물을 때에두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묻구 주인을 정할 때에두 될 수 있는대로 로인이 계시는 집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게다.》

원수님의 머리에는 길 떠나는 전날 저녁에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분부가 떠 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하루'밤 신세를 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원수님은 할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지나 가던 아인데 하루'밤 신세를 질 수 없을가요?》

원수님은 모자를 벗어 들고 공손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원수님을 찬찬히 바라보시더니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아이냐?》하고 물었습니다.

《만주에서 평양까지 갑니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 번 바라보더니

《그 먼 길을 혼자 걸어서 떠났어?》하며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원수님은 그저 싱긋 웃고 말았습니다.

《글쎄 방이 루추하구 음식이 입에 맞겠는지가 걱정이구나.》

《할아버지 별 말씀 다 하십니다.》하며 원수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섯 살 먹은 외손자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모자를 벗어 벽에 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때에 할머니는 뜨락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작이 잘 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 패 보겠습니다.》

원수님은 도끼를 받아 가지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장작은 보기 좋게 짜개졌습니다.

《이제는 죽어야겠어! 장작개비두 사람을 깔본단 말이야.》

할머니는 치마'자락으로 코'물을 씻으며 웃었습니다.

원수님은 무둑하게 쌓여 있던 장작을 잠간 사이에 모두 패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뜨락을 둘러 보았습니다. 뜨락은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원수님은 뜨락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집 어린애는 자기도 쓸겠다고 큰 비를 들고 먼지를 피우며 뒤뜨락을 쓸었습니다.

《너 아주 일을 잘 하는구나, 일 잘 하는데 상이나 하나 줄가.》하며 원수님은 낮에 산판에서 쉴 때 캐서 토막 지어 넣었던 칡뿌리 두 토막을 주었습니다. 그 애는 칡뿌리를 받아 들더니 부엌으로 뛰여 들어 가면서

《할머니 이것 봐.》하며 떠들어 대는 것이였습니다.

얼마 후에 저녁상이 들어 왔습니다. 나물죽이였습니다. 메밀가루는 한 줌이나 넣었는지 죽그릇에 얼굴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총각두 이런 죽을 먹어 봤는지.》

할머니가 첫 술을 들면서 하는 말이였습니다.

《우리두 늘 죽을 쑤어 먹습니다.》

《맛은 없어두 많이 들라구. 부엌에두 더 있어.》

《네, 아주 맛이 좋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 날 죽맛은 각별히 좋았습니다.

길 떠날 때에 어머니께서는 콩을 닦아서 보자기에 넣어 주었습니다. 원수님은 거리 음식점 앞을 지나면서도 좀처럼 음식을 사 먹지 않았습니다. 지짐집 앞으로 지날 때에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로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매면서도 려비를 아꼈습니다. 닦은 콩을 한두 줌 먹고 물을 마시면 점심 요기는 넉넉했습니다. 이 날도 점심 요기는 콩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퍽 시장했던 것입니다.

《총각은 몇 살이냐?》

하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열 세 살입니다.》

《열 세 살이면 숙성두하다. 난 열 대여섯 살 먹은 줄 알았군.》하며 할머니는 혀를 낄낄 챘습니다.

《장손이 너두 열 세 살 나면 혼자서 평양에두 가구 장작두 패겠니?》

《평양이 얼마나 머나? 장'거리보다 머나?》

장손이는 죽그릇을 부려 안고 소담스럽게 먹다가 죽그릇을 내려 놓으며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장'거리보다 멀지 한 백곱절 되지.》

장손이는 다시 죽그릇을 들더니 크게 한 술 떠 들이키더니

《신이 있어야 가지. 할머니 내 고무신 사 줄테야?》

하고 물었습니다.

《또 고무신 타령이냐.》

《고무신만 있으면 땅 끝까지라두 갈 수 있어! 또 장작두 패구.》

장손이는 노상 눈을 디굴디굴 굴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올 농사 지어서 가을에는 고무신두 사 주구 조끼두 사 주마.》하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전에두 가을에 사 주마더니 안 사 주구 또 가을이야? 만날 할아버지는 가을가을만 하거든.》

《그러니 어쩌겠니, 농사 지은 것은 모두 빼앗기구 타작마당에서 키하구 비만 가지구 돌아 온 판국인데.》

할아버지는 가늘게 한숨을 지었습니다.

《너두 부자'집에나 태여나지 왜 가난한 집에 태여나서 그러니》

할머니는 장손의 등을 뚜드려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 많이 벌어 오면 우리두 부자될텐데 뭐.》하며 장손이는 할머니를 흘깃 쳐다 보았습니다.

《네가 있어서 웃음이 나온다.》하며 할아버지는 큰대접에 담은 죽 한 그릇을 다 내고 다른 죽그릇을 끌어 당겼습니다.

장손이도 죽 한 그릇을 게눈 감추듯 다 먹었습니다. 그는 저녁을 끝내자 그 자리에 부수수 눕더니 맨 샷에서 쿨쿨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 때에 기와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할아버지네 집에까지 들려 왔습니다.

《또 한밥들 처먹는 모양이군.》

하고 할아버지가 긴 담배'대로 재떨이를 끌어 당기며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늘 저렇게 떠드는가요?》

하고 원수님이 물었습니다.

《그 놈의 집에서야 날마다 그 지랄이지, 오늘두 순사니 군청 나부랭이들이 한패 밀려 왔으니까 밤새도록 지랄을 지를 게다.》

《흥! 어느 놈은 굶어 죽고 어느 놈은 배 터져 죽는 세상이니까 실컨들 처먹으라지요.》

할머니가 상을 물리고 솜으로 심지를 끄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북간도는 살기 좋다는데 내 나이 50만 된대두 뛰여 들어 가겠다. 내 저놈의 성화에 지리 늙는다니.》

《팔자가 앞선다우. 북간도라구 그런 놈들이 없을 줄 아시우?》

《그래두 저놈들보다야 낫겠지, 그 개천집에서 아주 잘 했어! 우리두 그 때만 들어 가서도 이 모양으로는 살지 않을 거야.》

《에그 30 리 밖에두 못 나가는 주제에 어딜 간다구 그러우.》

이 말에 할아버지는 아무 대'구도 못 하고 담배만 빨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방안은 담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원수님은 산보도 할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와집 마당에서는 게사니 멱 따는듯한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어느 아이 놈이나 새끼가 우리나 자전거나 망가쳤소까?》

하고 혀 까부라진 소리가 째는듯이 밤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원수님은 흘깃 기와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때에 두세 명의 소년들이 《쿵쿵쿵》소리를 내며 이쪽으로 달려 오더니 할아버지네 굴뚝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그 애들은 킥킥거리며 이런 말을 주고 받는 것이였습니다.

《홍 그놈들 오늘 자전거를 끌구 15 리'길을 가려면 진땀 날 거야.》

《그런 놈들두 땀을 좀 흘려 봐야 해.》

《야들아, 요다음에는 다이야만 궤 뚫지 말구 호구를 꺾어 놓자, 다이야나 궤치면 그 자리에서 뗄 수 있거든.》

《응! 그게 좋겠다.》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 받더니 마을 뒤'줄로 사라졌습니다.

(멋진 장난들을 시작했구나)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기와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전거나 이렇게나 망가지도록 당신이나 뭐나 했소까?》

기와집 주인에게 하는 일본 순사놈의 욕설이였습니다.

《네네 나리님! 설마 이런 일이 있으리라구는 생각지두 못했습니다.》주인 놈은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원수님은 남의 집에서 진탕치듯이 처먹고도 욕설을 퍼붓는 놈이나 제 것을 먹이고도 벌벌 떠는 주인 놈이 모두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떠들썩 고아 대더니 그 놈들도 하는 수 없었던지 자전거들을 끌고 신작로 쪽으로 나가는 모습이 달'빛 아래 얼른거렸습니다.

《됐어! 저런 놈들은 저렇게 골탕을 먹어야 해!》

원수님은 입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통쾌한 눈으로 놈들의 뒤'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였습니다. 원수님은 조반상을 물리고 보자기에서 고량쌀 두세 홉을 꺼내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쩍 벌리더니 펄쩍 뛰는 것이였습니다.

《이게 무슨 노릇이냐, 나를 밥 장사 할미로 아냐 어서 넣어라.》

할머니는 보자기를 닁큼 빼앗더니 고량쌀을 다시 주머니에 《좌르르》 넣어 주는 것이였습니다.

《아니 받아 두서요. 할머니네 살림도 넉넉치 못하겠는데요.》

《걱정 말아라. 산 사람의 입에 거미줄 쓸겠니.》

할머니는 아주 막무가내였습니다.

장손이는 하루 사이에 원수님과 아주 친해졌습니다.

《형 집에 갈래? 가지 말구 우리 집에서 살자우 잉?》하며 원수님의 바지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갔다가 내 또 올게 그 때까지 잘 있으라우》

원수님은 장손이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갔다가 언제 오나?》

《네가 이만큼 크면 오지》

원수님은 장손이 머리보다 조금 우에 손을 들어 시늉했습니다.

《그 때 꼭 와야 해.》

《오구 말구.》

원수님은 떠날 무렵에 동전 몇전을 꺼내서 장손이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장손이 너 이걸루 엿 사 먹어라. 그리구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음!》하며 장손이의 입은 귀에까지 돌아 갈듯 하였습니다.

《아니 그건 왜 주냐, 장손아 형님께 돌려 줘!》

할머니의 엄한 말이였습니다.

그러나 장손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주머니를 두 손으로 꽉 붙들었습니다.

《이걸루 이따 엿 사다가 할머니를 줄게 가만히 있어!》하며 장손이는 노상 할머니를 얼려 보려고 대드는 것이였습니다.

《세상이 너 같았으면 정말 좋겠다.》

하며 할머니는 웃고 말았습니다. 세 식구는 마을 어구에까지 나와 원수님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박 승수

(1)

조직 앞에 다지는 맹세

가을입니다. 빽빽히 들어 선 이깔나무, 참나무 사이사이로 새파란 하늘이 보이고 초렁바위'가에 단풍이 붉게 타고 있습니다.

이따금 불어 오는 바람에 우수수 락엽이 질 뿐 밀림은 신비스러운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밀림 속의 이 고요를 깨뜨리며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넥타이를 매고 허리에 곤봉을 찬 아동단원들이 씩씩하게 노래 부르며 평퍼짐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왕우구 유격 근거지의 아동단원들입니다.

대렬 뒤로 붉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열뭐 살쯤 나 보이는 소년과 소녀가 아동단 지도원 선생과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만 보아도 몹시 흥분하고 있다는 걸 대번에 알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동무들은 아동단에 입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까지와는 달리 오늘부터는 혁명 조직의 한 성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동단원들이 줄 지어 섰습니다. 붉은 기'발이 대렬 앞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대렬 앞에 나선 아동단 중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조직에 강 룡남, 박 명숙 동무들을 받아 들이게 됩니다. 이 동무들은 아동단의 위임을 잘 실천했으며 입단할 준비를 잘 한 동무들입니다. 이제부터 입단 서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강 룡남, 박 명숙 동무 이리 나오십시오.》

룡남이와 명숙이는 높이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붉은 기'발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아동단 서약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무산 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며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며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전사로 혁명에 충직할 것을 굳게굳게 맹

세하였습니다.

롱남이는 붉은 기를 우러러 보며 아동단 규률을 가슴 속에 새겨 보았습니다.

지도원 선생이 가르쳐 주시던 것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며 동무들을 사랑하고 원쑤를 증오하라!

—조직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다. 조직이 주는 일에 충직하고 조직 생활에 충실하라! 단결보다 더 큰 힘은 이 세상에 없으니 굳게 단결하라!

—혁명은 견결하고 용감한 소년을 요구하거니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나아가라!

—아무리 용감하고 대담할지라도 학습을 게을리 한다면 훌륭한 아동단원이라 할 수 없다.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싸우라!

—복수의 불'길 세차면 무서움을 모르고 혁명의 승리를 굳게 믿으면 대담하고 용감해진다.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유격대 아저씨들을 존경하며 그 가정을 도우라.

—원쑤들의 움직임을 알며 《개》들을 잡아 내라. 원쑤들은 흉악하고 교활하니 그 어떤 원쑤인들 새여 들지 못하게 보초를 서며 그 어떤 원쑤인들 알지 못하게 통신을 보장하라. 비밀을 목숨으로 지키며 언제, 어디서나 일제 놈과 싸울 것을 선전하라!

—자기 개인의 리익을 버리고 혁명의 리익에 복종하라!

롱남이와 명숙이는 아동단의 규률을 외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태여나서 처음으로 조직 앞에 자기의 신성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아동단원이 혁명 앞에, 자기 조직 앞에 다지는 맹세—이것은 한갖 웨침이 아니며 빈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 임무를 끝까지 이악하게 수행하며 조직의 위임을 충실히 수행할 굳은 결의입니다. 이것은 혁명 조직을 끝없이 믿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조직 앞에 맡기고 그 속에서 자라고 발전할 것을 바라는 심장의 맹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단원들은 언제나 조직 앞에 다진 맹세를 잊지 않았으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맹세를 지켜 씩씩하고 용감하게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아동단 지도원 선생이 롱남이와 명숙이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 주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여 세차게 물'결쳤습니다. 아동단원들이 그들을 축하하여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어서 롱남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명숙이는 자기의 붉은 넥타이를 내려다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이 혁명의 넥타이—붉은 넥타이를 고이 간직하고 조직에 충실해야 한다.

이 붉은 넥타이 속에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일제 놈들과 싸우는 혁명 투사들의 피가 스며 있다. 이 붉은 넥타이는 우리의 삼 세대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중에 너희들은 첫 세대들이다.

너희들은 아동단에서 자라 공청의 대렬에 들어 서야 하고 공청의 불'길 속에서 투사로 단련되여 당에 입당하여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어려울 때면 아동단의 신성한 서약을 생각하고 아동단의 규률을 지키라…》

지도원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맺으며 롱남이와 명숙이의 손을 꼭 쥐여 주었습니다.

입단 서약식이 끝난 다음 오락회가 벌어졌습니다.

아동단원들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습니다. 그 다음엔 《단심'줄》을 추었습니다. 아동단원들은 이 무용조곡을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아동단원들은 버섯을 이고 지고 마을로 돌아 왔습니다.

이것은 유격대 아저씨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아이들의 씩씩한 노래 소리에 사람들은 모두 집에서 나왔습니다. 중대장은 붉은 기'발을 들고 맨 앞장에 섰습니다. 그 뒤에 롱남이와 명숙이가 붉은 넥타이를 바람에 나붓기며 걸음 맞춰 행진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어머니를 보자 롱남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노래에 맞춰 세차게 팔을 내저었습니다.

첩첩한 산'골의 밤은 빨리 찾아 옵니다.

황혼이 붉게 타더니 밀림 속으로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둠이 소리도 없이 다가 들어 마을을 휩싸고 말았습니다.

롱남이는 가물거리는 코콜불 아래에서 유격대 아저씨가 선물로 준 조그마한 수첩에다 자기 이름을 써 넣고 그 날의 감격과 맹세를 써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설겆이를 마치고 치마에 손을 문지르시며 들어 오셨습니다.

《너 뭘 쓰고 있니?》

《어머니! 이 수첩은 매일매일 우리 아동단 생활을 총화해서 적어 넣으라고 유격대 아저씨가 주신 것이예요. 그래서 오늘의 맹세를 써 넣으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롱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 무엇인가 생각하시더니

《롱남아, 내 옛말을 하나 할테니 들어 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날 밤 어머니는 억울하고 고난에 가득찬 지난 날을 롱남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롱남이의 고향은 황해도 평산땅이였습니다.

롱남이가 태여났을 때 아버지는 소작쟁이에 참가한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롱남이 우로는 일곱 살 나는 형과 다섯 살 난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머니가 롱남이를 낳고 앓아 누운 봄에 불쌍하게도 굶어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모진 고통과 학대 속에서 가난과 주림에 시달리면서 롱남이를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온 그 이듬해 롱남이네는 일제 놈들을 피하여 정든 고향을 등지고 함경도 장진땅으로 가서 화전을 일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데라고 일본 놈들의 살기 띈 눈초리가 닿아 있지 않으며 임자 없는 빈 땅이 있었겠습니까!

롱남이네는 다시 그 곳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 동북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롱남이네는 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착취를 받고 억압과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롱남이 아버지는 김 일성 원수님의 항일 유격대에 입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어 온 길이란다.

롱남아!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마라. 너도 아동단원이니 아동단 생활을 잘 해서 아버지처럼 유격대원이 돼라. 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마치였습니다. 밤은 깊었으나 롱남이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비참한 어린 시절

지주 놈의 소작살이를 하던 아버지가 병으로 신음하다 세상을 떠난 것은 내가 열네 살 때였습니다.

그 후 지주 놈에게 소작땅마저 떼운 어머니와 나도 고향인 평원을 등지고 돈'벌이가 좋다고 소문난 겸이포(지금의 황해제철소가 있는 송림)로 살'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벌이가 좋다》던 겸이포에서 내가 본 것이란 살'길을 찾아 모여 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쪽바가지를 등에 걸머지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여 골목마다에 가득가득 차고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에서 얼굴이 부석부석한 로동자들이 맥없이 도살장 같은 공장문을 드나드는 모습이였습니다.

《도토리 같은 놈의 새끼, 이 세멘트 포대나 메여나 봐.》

내가 일'자리를 구하려 공장에 갔을 때 아래 우를 훑어 보던 왜놈 자본가 놈이 하는 말이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무거운 세멘트 포대를 닁큼 들어 어깨에 메였습니다. 무엇이라 옆의 놈과 거들먹거리던 그 놈은

《응 생긴 것보다 힘이나 쓴다.》 하며 대뜸 일'자리를 주는 것이였습니다. 이리하여 이 날부터 도살장 같은 로동판에서 고된 일을 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하러 나갔다가는 어두워서야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 와 쓰러지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몸이 뼈빠지게 일하여도 아침 저녁 차례지는 것이란 대두박으로 쑨 멀건 죽이였습니다.

왜놈들은 로동자들을 소나 말처럼 착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을 완전히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공장에 《일어(일본말) 강습소》란 것을 만들고 강제로 여기에 끌어 왔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생각하여 보십시오. 돈 없이 학교 문앞엘 가지 못 하는 일만도 억울하고 분한데 아름다운 우리 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왜놈들의 말을 배우라니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로동자들이 작업할 때 일본말을 쓰지 않고 한 마디라도 조선말을 하면 강습소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한 마디에 10 전, 강습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20 전씩 벌금까지 받아 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수첩에 적었다가 월급에서 떼기도 하였다.) 그러나 왜놈들이 제아무리 이렇게 하여도 그 놈들에게 아첨하는 십장 나부랭이와 그 앞잡이 몇몇 놈들만이 강습소에 다녔을 뿐 로동자들은 한 사람도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본가 놈의 착취는 이것만이 아니였습니다. 세멘트 포대 같은 것을 운반하다가 어떻게 잘못 되여 약간이라도 찢어진다거나 세멘트를 흘려도 하루 임금의 절반을 뭉텅 짤라 내군 하였습니다.

새 발의 피만큼도 못 되는 임금마저 이렇게 저렇게 짤리우고 나면 남은 것이란 정말 없었습니다. 로동자들은 먹지 못 하고 일하다가 짐을 진 채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 나지 못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나의 몸도 쇠약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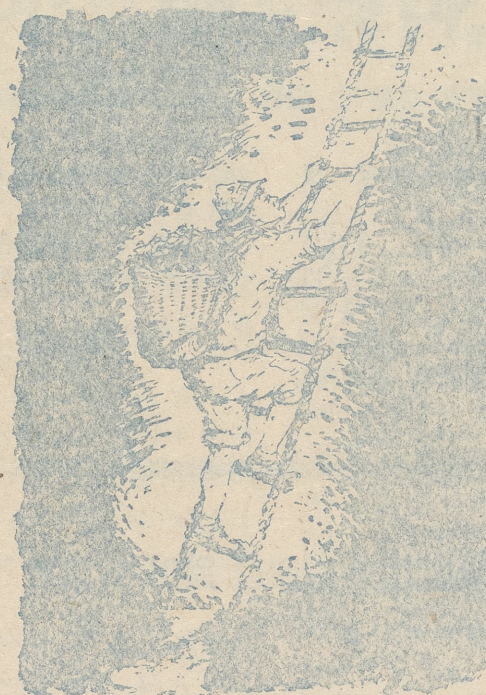
아침부터 보슬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안'간힘을 써서 세멘트 포대를 둘러 메자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져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땅에 철썩하고 떨어진 세멘트 포대는 찢어지고 흙탕물이 스며 들어 갔습니다. 《바가야로》하는 소리가 귀청을 때리더니 두 눈에서 불이 번쩍 일며 정신이 아찔해 왔습니다. 자본가 놈의 구두'발이 면상과 옆구리에 날아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자리에 눕게 되자 함께 일하던 로동자들은 돈을 모아서 주기도 했고 어머니는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달비까지 팔아다 약을 썼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내 륵골(갈비뼈) 하나를 잘라 내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생죽음의 굴속에서

열 여덟 살 되던 해 나는 도살장 같은 제철소를 벗어나 이 번에는 문천 탄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라 없는 설음과 가난의 쪼들림이 어디 간들 사라지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걸음마다 따라 다녔습니다.

광부들은 입고 자던 해진 베잠방이를 입은 채 로동 안전 시설이란 하나도 없는 승냥이 굴 속 같은 갱 속에 들어 가 일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로동자들은 하루 일을 끝내고 나와야 또 하루를 무사히 살았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군 하였습니다.

나는 탄통을 질머지고 수십 메터씩이나 되는 갱도의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석탄을 져 날랐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굴에서 언제 어떻게 닥쳐 올지 모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당장 산 목숨을 지리 끓지 못 해 일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갱은 어떻습니까. 굴 안은 기차굴처럼 콩크리트를 하였고 곳곳에 전등'불을 켜고 모두 기계로 안전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왜놈 자본가 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밑천을 적게 들이고 더 많은 리익을 짜내기 위해 아예 기계를 들여 놓을 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굴 속에서 일하다가 생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였습니다.

하루는 내가 굴에서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탄을 지고 사닥다리를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 떨어졌다.》

아찔하게 내려다 보이는 밑바닥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던 나는 눈앞이 아찔해지며 쥐였던 바'줄을 놓아 버리며 허궁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람 시체 우에 떨어진 나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였습니다. 동무들의 도움으로 죽음에서는 구원되였지만 반 송장이 된 나는 또다시 자리에 눕게 되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겨우 자리에서 일어 난 나는 다시 굴 속에 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내가 다시 일하기 시작한 다음 날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번에는 갱 막장에 생기는 가스가 폭발되면서 굴 안은 잡시간에 불'길로 휩싸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며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나 왜놈 자본가들은 갱 속에 들어 간 수도관이라도 터놓아 불을 끌 대신에 갱이 물에 잠긴다고 하면서 졸개들을 시켜 불이 다른 갱에 옮겨 가지 못 하게 출입구를 막아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타 죽거나 질식되여 죽었습니다. 이 날 나는 자그마한 물웅덩이에 들어 갈 수 있어 천만 다행히 목숨이 살아

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려 내라!》
《약값을 내놔라.》
광부들과 가족들이 창문과 책상을 짓부시며 쳐들어 갔습니다. 로동자들의 등등한 기세에 겁을 먹고 왜놈은 몇 푼 안 되는 돈과 고약통을 내놓으며 가재 걸음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왜놈들에 대한 증오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터진 로동자들은 《이 승냥이 같은 놈아, 사람 죽어 가는데 고약은 무슨 고약이냐!》 하며 약통을 와락 집어 자본가 놈의 면상에 던졌습니다.
나중에는 말탄 경관들이 총칼을 휘두르며 달려 들었지만 로동자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이처럼 억울했던 쓰라린 세월은 먼 옛날 일로 되였습니다.
나는 피눈물겨운 지난 날을 생각할 때마다 사회주의 조국에 사는 보람을 가슴 뜨겁게 느끼며 공업의 빵인 석탄을 더 많이 캐 낼 것을 다짐합니다. 1963년에 더 많은 광석과 석탄을 캐내라는 당의 부름을 받들고 나는 더 많은 석탄을 캐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번에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 선풍기 운전에 필요한 《원거리 조작 장치 기계》를 창안하여 석탄을 더 많이 캘 수 있고 일 년에 천 여 공수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의 행복을 안겨 준 당과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뿐입니다.
동무들! 우리들은 행복할수록 부모들의 쓰라렸던 과거와 오늘의 사회주의 조국을 안겨 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사회주의 제도를 어떠한 원쑤도 얼씬 못 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멸망 당한 지주, 자본가 놈들은 어리석게도 틈만 노리면서 다시 자기들의 옛제도를 회복해 보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목숨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자강도 전천 탄광
김 정규

력세 없이 요일을 알아 맞히기

△먼저 아래와 같은 년 번호와 월 번호를 기억해야 한다.

(년 번호)	(월 번호)
1963년— 7	1월—1
1964년— 1	2월—4
1965년— 2	3월—4
1966년— 3	4월—7
1967년— 4	5월—2
1968년— 5	6월—5
1969년— 6	7월—7
1970년— 7	8월—3
	9월—6
	10월—1
	11월—4
	12월—6

※1971년부터는 다시 1에서 7까지 번호를 단다.

△년, 월, 일을 알고 그 날이 무슨 요일인가를 알아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년 번호+월 번호+날'자 ÷7=답…나머지

나머지가 1이면 월요일이고, 2이면 화, 3이면 수, 4이면 목, 5이면 금, 6이면 토, 0이면 일요일입니다.

(례) 1963년 8월 15일은 무슨 요일일가?

(7 (년 번호)+3(월 번호)+15 (날'자))÷7 =3 나머지 4(목요일)

—원산시 동해 중학교 단 제 4 분단 정 도훈 동무에 대한 이야기—

조 병권

학교에서 돌아 온 도훈이는 밖에서 옷을 털고 나서 옷깃을 여미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이건 남의 집이건 방에 들어 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몸차림을 단정히 하고야 들어 가군 합니다.
《어머니! 학교에 다녀 왔습니다.》
방에 들어 선 도훈이는 어머니에게 깍듯이 인사를 드리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루 같이 학교에 다녀 오거나 어디 나갔다 돌아 오면 어머니께 다녀 왔다는 인사를 꼭 드리군 합니다.
도훈이가 복습을 하려고 책을 펼치는데 밖에서 누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나가 보니 안변에 계시는 외삼촌이 오신 것이였습니다.
《삼촌 오셨습니까.》
도훈이는 반가이 인사를 드리고 나서 외삼촌의 손'짐을 받아 들고 들어 왔습니다. 그는 외삼촌이 외투를 벗자 받아서 옷걸개에 갖다 걸고 나서 방석을 가져다 외삼촌께 권하였습니다.
《도훈이가 한해 동안에 여간 달라지지 않았거든, 인사성이 아주 밝아졌단 말이야…》
외삼촌은 도훈이의 팔을 끌어 당기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외삼촌의 이 말씀을 듣는 도훈이는 한 해 전 외삼촌이 오셨을 때의 일이 생각나서 쑥스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빨개진 얼굴을 다소곳이 수그리고 앉아서 히죽이 웃었습니다.
그 때 도훈이는 오래간만에 오신 외삼촌 앞에서 히죽히죽 웃기만 하고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 재촉해서야 꾸뻑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벙어리처럼 인사의 말도 없이 절을 한다고 책망했습니다. 도훈이는 외삼촌이 돌아 가실 때는 꼭 인사의 말도 하고 절도 정중히 하리라고 마음 속으로 별렀지만 정작 떠나는 날 《삼촌,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이 나오지 않아서 입속말로 얼버무려 어머니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도훈이는 마을 어른들을 만났을 때도 인사를 하리라고 생각했다가도 어쩐지 부끄러움이 앞서서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지나치군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도훈이더러 《사람은 례절이 밝아야 한단다. 태조네 집에 가면 그 집 애들은 나를 보고 깍듯이 인사를 하는데 넌 왜 집에 찾아 오는 손님에게 인사도 드릴 줄 모르느냐. 난 손님을 보기가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고 나무라시였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훈이는 생각했습니다.

(례절을 잘 지키는 것은 소년단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데 난 례절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까지 괴롭히누나. 나도 례절 밝은 소년단원이 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자.)

도훈이는 이튿날부터 학교에 오갈 때는 어머니께 인사를 하였고 집에 찾아 오는 손님은 물론 근처에 계시는 웃어른들에게도 인사하군 했습니다. 처음엔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서도 고개를 숙이군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동안이였습니다. 인제는 인사할 때 주저하거나 수줍은 감을 조금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한 가지 인사법 밖에 몰랐습니다. 어느 때,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안녕하십니까?》이 한 마디 인사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 상점으로 가던 도훈이는 길'거리에서 김장용 채소를 리야까에 싣고 끌고 오는 마을의 인민반장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도훈이는 《안녕하십니까?》하고 반장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신 어머니는《넌 어느 때 봐두 그저〈안녕하십니까?〉하는 한 마디 인사이구나. 례절은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을 봐 가면서 그에 알맞게 해야 한단다.》고 하시면서 이자 반장 어머니에게 《안녕하십니까?》하는 것보다 《수고하십니다.》고 하는 것이 더 알맞는 인사라고 일러 주시였습니다.

그 후부터 도훈이는 조그마한 수첩을 구해 가지고 거기에 《웃어른들에게 말하는 법》,《길'거리에서 오가면서 지켜야 할 례절》,《공중 집합 장소에서 지켜야 할 례절》, 《찾아 온 손님에게와 자기가 손님으로 갔을 때 지켜야 할 례절》,《방안에서 지켜야 할 례절》등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례절법을 선생님과 어머니에게 물어서 적어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익혔습니다. 그러나 가끔 실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훈이는 례절법을 익히기 위해 방안에서 혼자 련습도 해 보고 동무네 집에 가서 서로《손님》이 되기도 하고《주인》이 되기도 하면서 손님으로 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지켜야 할 례절법을 련습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훈이는 학교와 마을에서 인사성 밝은 소년단원으로 되였습니다.

분단 위원으로서 5반을 맡아 가지고 도와 주는 도훈이는 반 동무들도 모두 례절 밝은 소년단원들이 되도록 잘 도와 주었습니다.

그는 반에서 반 생활이 시작될 때마다 먼저 례절법을 하나씩 내놓고 련습시키군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웃어른들에게 물건을 가져다 드릴 때 지켜야 할 례절을 토론해 보자.》

도훈이는 이렇게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그야 두 손으로 드리면 되지 머.》

봉수가 선듯 대답했습니다.

《두 손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웃어른들이 쓰기 편리하게 해서 드려야 한다구 생각해. 만년필이라면 마개를 열어서 드리고 칼이라면 칼집에서 칼날을 빼서 드리구…》

정애의 이 말에 모두 맞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마쳤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어. 나두 그 전엔 그렇게만 생각했어. 그래서 실수까지 한 일이 있어.》

도훈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날 자기가 실수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8.15 명절날 형님과 한 직장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과실을 사들고 도훈이네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도훈이에게 칼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도훈이는 호주머니에서 제꺽 칼을 꺼내서 두 손으로 공손히 드렸습니다. 옆에서 이것을 보고 계시던 도훈의 형님은《그렇게 드려서야 되나?》하고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도훈이가 그 뜻을 알 수 없어 머뭇거리는데 형님은《칼이나 연필이나 우산 같은 것을 웃사람에게 드릴 때는 물건을 받는 사람 편에 자루가 향하게 하고 드려야 한단다.》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칼'자루는 자기가 쥐고 있었고 칼날이 아저씨편으로 향해 있였습니다.

이렇게 모여 앉을 때마다 소년단원들이 지켜야 할 례절법을 토론하고 그를 꼭꼭 지켜 행동에 옮기고 있는 5반 동무들은 분단에서 례의 도덕을 지키는데 모범으로 되였습니다.

도훈이는 동무들이 례절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제때에 타일러 고치도록 도와 주군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 경남이와 함께 안변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정거장에 나갔습니다. 벌써 차표 파는 곳에는 많은 손님들이 늘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두 사람씩 서 있을 필요야 있니. 넌 이 짐을 가지구 대합실에 가 기다려, 내가 사올게.》

경남이는 도훈에게 말하고 차표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남이는 잠간 사이에 차표를 사들고 와서 자기의 날랜 솜씨를 보란듯이 차표를 내주면서

《어때 날쌔지?》하고 새치기한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소년단원의 행동이 아니야, 선생님은 소년단원들은 공중 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던, 앞에서 자꾸 새치기를 하면 뒤에 선 저 아버지, 어머니들은 언제 차표를 사겠니?》

도훈이는 경남에게 조용조용 타일러 주었습니다.

《내가 잘못 했다. 다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테다.》

경남이는 이렇게 말하고 슬며시 일어 서더니 차표 사는 줄에 가서 웬 늙은 할머니 한 분을 대합실에 모셔다 드리고 자기가 할머니 대신 줄에 서서 차표를 사다 드렸습니다.

도훈의 례절 있는 행동은 분단 동무들의 모범으로 되여 지금은 22분단 전체 동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례절을 잘 지키는 소년단원으로 학교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동요)

모를 꽂아요

개나리꽃도 곱게곱게 피여나고
종다리도 지종지종 노래하는 봄날
온 농장이 떨쳐 나서 모내기해요.

발목 차게 거름 낸 벌에 뜨락또르 통탕통탕
쇠써레 끌고 가니 논물이 술렁술렁
황소 열 마리 대신하여 써레질해요.

흙덩어리 풀리여 고루어진 논'배미
모내기 선수들 쌍모줄 띄워 놓고
푸르디푸른 랭상모 총알처럼 꽂아 가요.

아버지, 어머니들 일'손을 도와
정성 들여 모 꽂는 소년단원 우리도
노래하며 척척 어른들을 따라요.

가을이면 황금산 두둥실 쌓아 놓고
풍년 소식 원수님께 먼저 전할 마음으로
노래하며 모를 꽂아요, 행복을 누벼요.

황해남도 벽성군 벽성 공업 학교
김 창국

생활을 즐겁고 다양하게

자라나는 우리들의 솜씨

우리들의 예술 체조, 집단 체조, 미술 작품 전람회, 연예 써클 경연 대회를 보시는 부모님들은 《어쩌면 저렇게 한 사람처럼 다 훌륭한 재주를 가졌을가? 모두다 재간둥이군》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들의 체육 연예 사업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아주 발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소년단 단체들에서 사업을 흥미 있고 다양하게 조직하며 생활을 유쾌하고 즐겁게 해 나가도록 할 데 대한 지난 해 5월 3일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이 있은 이후 우리 학교 단 위원회가 많은 활동을 한 결과입니다.

우리 학교 단 위원회는 과외 활동을 소년단원들의 취미와 요구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음악 소조원들은 매 분단에 내려 가 악보 보는 법과 악기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래 모임》, 《기악 경연 대회》, 《연예 경연 대회》 등을 조직해 주었습니다. 무용 소조 동무들은 방과후마다 분단들에 나가 군중 무용을 배워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지금 우리 학교 단의 전체 동무들은 누구나 다 《소년단 행진곡》을 비롯해서 다섯 가지 이상의 군중 무용을 출 수 있게 되였고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되였습니다.

원 춘희, 리 윤옥, 현 옥화 동무들을 비롯 해서 아주 재간 있는 《꼬마 예술가》들이 날마다 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문학 음악 무용 소조원들이 힘을 모아 창작해서 공연한 아동극, 재담, 무용만 해도 30 여 종목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무용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는 구역 연예 경연 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교의 체육 사업도 한층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위원회의 계획에 의하여 자주 축구, 배구, 롱구 경기가 벌어지고 씨름, 널뛰기, 각종 륙상 경기가 진행됩니다.

경기가 끝나면 남자 동무들은 모두가 집단 체조를 하며 녀자 동무들은 전원이 예술 체조를 합니다.

이리하여 지금 방과후만 되면 학교는 구락부와도 같이 흥성거립니다. 음악실에서는 각종 기악 소리가 흘러 나오며 합창과 독창이 울립니다. 운동장에서는 승부를 다투는 각종 《격전》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인민 체력 검정에서 4 분단을 비롯해서 8 개의 분단은 100%가 소년급에 합격되였습니다.

이렇게 체육 연예 활동을 잘 하니 우리들의 생활은 더욱 씩씩하고 명랑해졌습니다.

평양 교원 대학 부속 중학교 단
박 명 화

각종 연구 소조 활동과 수학 려행으로

우리 학교 단에서는 교과서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과외 및 교외 활동을 진행하여 배운 지식을 쓸모 있는 산 지식으로 만들라고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지난 해 5월 3일 교시를 받들고 다채로운 사업들을 많이 조직했습니다.

각 연구 소조들에서는 원산, 개성, 묘향산, 신천 박물관, 남포, 청산리 등에 수학 려행을 조직하고 이 곳에서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 등을 견학하면서 천리마로 내달리는 사회주의 조국의 우람찬 건설 모습을 보았고 또한 이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과 결부된 지식으로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묘향산으로 수학 려행을 한 동식물 연구 소조원들은 식물과 동물 과목에서 배운 우리 나라의 식물과 산림 속에서 살고 있는 곤충, 짐승, 새들의 생활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배운 지식을 튼튼히 다지고 넓히였습니다. 그들은 이 수학 려행에서 수십 종에 달하는 곤충, 식물 표본들도 만들었습니다.

지리 력사 연구 소조에서는 박연 폭포를 비롯한 개성의 명승 고적들도 견학했습니다.

단 위원회는 분단별로 웅변 대회, 작문 짓기 대회, 학과 토론회, 시랑송 모임, 동화회 등 흥미 있는 모임들을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학습을 더 잘 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단 위원회는 신천 박물관을 견학하고 돌아 와서 《미제는 우리의 철천지 원쑤이다》라는 웅변 대회를 가지였습니다. 김 광현 동무를 비롯해서 웅변 대회에 참가한 모든 동무들은 한사람처럼 몸서리치는 미제의 만행을 저주하면서 그 놈들을 하루 속히 남조선 땅에서 내몰기 위해서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모란봉에서 조직되는 작문 짓기 대회는 모든 동무들의 정서를 풍부히 하며 문학, 력사 학습을 돕는 흥미 있는 모임의 하나로 되였습니다.

소년단원들 속에서 나온 작문 《을밀대》, 《천리마 동상》, 《대동강》, 《모란봉》, 《부벽루》 등은 명승 고적의 력사와 결부시켜 사회주의 조국의 오늘을 노래하는 아름답고 씩씩한 마음들이 담기였습니다.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우리가 조직한 이러한 다양한 사업은 전체 동무들의 흥미를 끌었고 원쑤를 미워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 주었으며 우리의 지식도 풍부히 해 주었습니다.

평양시 서문 중학교 단
김 관 욱

(2회)

그림 양 재혁

박 응호

(2) 한 장의 략도

천룡이는 밤마다 명길이네 집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학교도 더는 결석하지 않았다. 원래 머리가 둔하지 않은 천룡이는 그만 밀렸던 공부를 제꺽 따라 잡았다.

언젠가 천룡이는 자기 어머니가 명길의 정성을 봐서라도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타이르더라는 말을 했다.

명길이는 기뻤다. 그럴수록 더욱 천룡이를 도와 주고 싶었다.

천룡이가 자진해서 명길이를 찾아 오는 통에 명길은 자연 천룡이네 집에 갈 일이 없게 되였다. 명길이와 천룡이 사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친해졌다. 더우기 천룡이 어머니가 작업반장인 명길이 어머니네 농산반으로 옮겨 온 후로는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였다.

명길이 어머니는 매일 같이 찾아 오는 천룡이를 무척 귀여워 했고 색 다른 음식만 하면 의례히 천룡이 몫으로 내놓고 기다리기까지 했다. 어쩌다 천룡이가 오지 않는 날이면 몹시 쿨쿨해서 명길이더러 가 보라고까지 했다.

천룡이는 천룡이 대로 명길이 어머니를 따랐고 존경했다. 그는 명길이네 집에 오면 제 집처럼 일을 찾아 했고 어떻거나 도우려고 했다.

천룡이는 명길이와 가까이 지내면서 차츰 말도 하게 되였고 이따금 깔깔대며 웃기까지 했다. 이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였다. 명길이도 첨엔 그의 높은 웃음 소리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보통일로 여겨졌다. 그만큼 천룡이는 명랑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천룡이는 가정 일이나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낯을 찌프렸다. 한 번은 명길이가 자기 아버지가 후퇴 시기 미국 놈들에게 학살되던 이야기를 했을 때 천룡이는 어쩐지 괴로운 기색을 하는 것이였다. 그러며 몰래 한숨까지 쉬였다.

명길이는 더는 천룡이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다시는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천룡이는 아버지가 미국놈에게 학살되고 보니 그런 이야기는 괴로울 것이라고 명길이는 생각하였다.

이지음 경팔이와 문일이들은 대포쟁이로 아이들의 놀림가마리가 되였다. 그것은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였다.

며칠 전 천둥치고 비 오는 날 밤이였다.

천룡이를 보내고 명길이는 어머니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었다. 별안간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났다. 명길이가 급히 문을 열었다. 비를 흠뻑 맞은 경팔이와 문일이들이 바람처럼 뛰여 들었다. 그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와들와들 떨기까지 했다.

《아니 너희들이 웬 일이냐?》

어머니가 수건을 들고 나서며 다급히 물었다.

경팔이와 문일이들은 한동안 넋을 잃은 아이들처럼 눈들이 둥글해서 문지방에 서고만 있었다.

명길이가 조심히 물었다.

명길이가 심상치 않은 일임을 알아차리고 급히 두 아이를 방안에 끌어 들였다.

《왜 그래?》

경팔이가 입술을 푸들푸들 떨며

《도…도…도까비가……》

하며 말끝도 채 맺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명길이는 웃지 않았다.

《자세히 말해 봐!》

명길이가 다우쳐 물었다.

문일이가 떠듬떠듬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는 밖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뢰가 끄르릉거릴 때마다 겁에 질린 얼굴로 흘끔 창문을 살폈다.

그들은 이 날 토끼사 당번이였다. 그런데 밤에 천둥치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통에 그들은 토끼사가 걱정이 되여 학교로 달려 갔다. 그들은 가마니뙈기들을 가져다가 토끼사에 비가 새지 않도록 씌워 놓았다. 그러느라니 시간도 퍼그나 지났다. 그들은 줄곧 비를 맞으면서도 자기들의 책임을 다 한 자랑에 추위도 무서움도 몰랐다. 경팔이는 은근히 자기들의 자랑찬 행동을 누가 보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했다. 문일이 역시 그런 심정이 없지 않았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명길이네 집으로 천천히 비를 맞으며 걸어 왔다. 경팔이는 자못 만족하여 휘파람까지 불었고 문일이는 세차게 이'새로 침을 내쏘았다.

그들이 명길이네 집 울 밖을 돌아 서는 때였다. 문일이가 급히 물이 뚝뚝 흐르는 손'바닥으로 휘파람을 부는 경팔이의 입을 틀어 막았다. 문일이가 급히 명길이네 들창 쪽을 손질했다. 경팔이는 하마트면 악소리를 지를 번 하였다. 들창에서 비치는 불'빛 속에 펀득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분명 언젠가 축사 쪽에서 본 그 무서운 그림자였던 것이다.

두 아이는 일시에 소래기를 질렀다. 그러며 뜰 안으로 달려 들었다. 그러나 들창 밑에는 그림자의 자취도 없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웃기만 했다.

그 날 밤 경팔이와 문일이는 명길이의 도움을 받아서야 돌아 갔다.

그들은 이 날 밤 이야기를 또 아침에 학교에 나가 퍼뜨려 놓았다. 가만 있었드라면 별 일이 없었을 것인데 속에 품은 것은 잠시도 숨겨 두지 못 하는 경팔이여서 또 한바탕 이야기를 늘어놓았던 것이다.

그 전에도 한 번 들은 일이 있는 분단 아이들은 이 번에는 곧이 듣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경팔이와 문일이들은 분단 모임에서 미신을 퍼뜨린다고 단단히 꾸중까지 들었다.

이 날 모임에서 명길이는 절대로 이야기를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경팔이와 문일이들을 나무라

지는 않았다.

어느 사이엔가 분단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엉뚱한 거짓말만 꾸며 대는 대포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명길이는 가끔 어디론가 나다니군 하였다. 이것은 아무도 몰랐다. 지어는 어머니까지 눈치 채지 못하였다.

며칠이 또 지났다.

천룡이는 여전히 저녁이면 명길이를 찾아 왔다.

이 날 천룡이는 어째서인지 얼굴색이 그리 좋지 않았다.

《너 어디 아프지 않어?》

명길이가 걱정이 되어 물었다.

《아니…》

천룡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태연한 체 하였다.

어머니도 천룡이 낯'빛이 좋지 않아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기까지 했다.

이 날 밤 천룡이는 가끔 명길이 몰래 한숨을 쉬군 하였다.

문득 천룡이가 이런 말을 꺼냈다.

《명길아! 너 도까비 얘기 어떻게 생각하니?》

명길이는 갑자기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 한참 천룡이의 얼굴을 지켜 보았다.

《어떻게 생각하긴…거야 눈홀림이지 뭐…도까비가 있을 거나 뭐야…》

명길이가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원래 겁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도까비를 만들어 무서워 하지.》

어머니도 빨래한 옷가지들을 개키면서 한 마디 끼였다.

천룡이는 이에 대해서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참 천룡아…》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천룡이를 불렀다.

《오늘 어머니가 일 나오시지 않았더구나…가 본다면서 못 갔는데 어디 편찮으시냐?》

천룡이는 대뜸 낯을 찌프리며

《아뇨…》

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하였다.

천룡이는 어머니가 읍에 장 보러 갔다 온 이야기를 불평 비슷이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는 한동안 옷가지들을 꾹꾹 발로 밟으며 서성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다.

《너한테 이런 말을 해서 안 됐다만 엄마더러 네가 좀 잘 말씀 드려라. 요즘 너희 엄만 일에 몸을 잠구지 못하고 이런 저런 쓸 데 없는 말만 돌려 탈이야…》

《우리 어머닌 그래요.》

천룡이는 낯을 붉히며 고개까지 떨어뜨렸다.

《조합이 가주 조직되고 보니 별 나쁜 놈들이 지랄을 쓰지. 그 전에 잘 살던 놈들이 악을 쓰고 대 든단 말이야…너희루 말하면 아버지가 미국놈 폭격에 세상 떠나구 의지할 데란 조합 밖에 더 있겠냐…조합이자 너의 집이지.》

어머니는 근심어린 얼굴로 타이르듯 천룡이에게 말하였다.

이 날 밤 천룡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 갔다.

명길이는 천룡이가 측은하여 그를 관리위원회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가 천룡이를 바래 주고 집에 돌아 오니 어머니가 이불을 펴다 말고

《천룡이가 저걸 잊어 먹고 갔구나…》

하며 책상 우의 종이 한 장을 가리켰다.

두겹으로 오래 전부터 접어 놓은듯한 종이는 책갈피에서 떨어진 게 분명했다.

명길이가 무심히 종이를 펴 보았다. 거기에는 끄밀끄밀 그린 산이며 전답이 그려 있었다. 구획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인지 황철나무며 개뚝들의 그림도 세밀하게 표해 있었다.

《어머니…이건 무슨 그림일가?》

명길이는 의아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략도를 내 보였다.

《이건 산이구 이건 논밭이로구나…》

어머니도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다. 얼핏 보면 지리 시간에 지도 작업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명길이는 이 략도가 어쩐지 이상스럽게만 생각되였다. 지리 시간에 이런 작업을 한 일도 없었고 더구나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그릴 필요가 또 어디 있단 말인

가?

천룡이의 솜씨로 보아 이렇게까지 그릴 수도 없다고 명길이는 느껴졌다.

다음 날 새벽이였다.

천룡이가 숨이 턱에 닿아서 헐레벌떡 뛰여 왔다.

《명길아 어제'밤 내가 뭘 하나 떨구고 갔는데…》

하고 략도란 말을 피하여 물었다.

명길이는 빙그레 웃으며 설합에서 략도를 꺼내 주었다.

《이건 뭐야?》

《그전에 아버지가 준 거야.》

《이건 뭘 하게?》

《전 나두 몰라.》

《모르는 걸 뭘 하러 가지구 다녀?》

《거저 가지고 다니래서……》

《산과 논밭이드구나?》

《응…그전에 토지 개혁 때 받은 땅이래…》

천룡이는 난처한 얼굴로 잦아드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천룡이더러 조반을 같이 먹자고 억지로 끌어 들였다.

천룡이는 뿌리치고 가려고 했으나 명길이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바람에 마지 못해 방안에 들어 앉았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얘길 다 들었던 모양으로 술을 놀리며 말을 꺼냈다.

《참 해방돼서 토지 개혁 때 일을 어떻게 잊겠니…난생 부럽던 땅을 나라에서 거저 받았으니…얘 아버진 땅을 받던 날 땅의 흙을 움켜 쥐고 울었단다. 얘 아버지두 그 날 밤으로 내 땅을 그렇게 그려 놨지…그러며 이제는 누구도 이 땅을 빼앗지 못한다구…그걸 꽁꽁 접어 가슴에 넣고 다녔지…》

어머니는 감개무량한 얼굴로 말하는 것이였다.

명길이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북북 밥만 퍼 먹었다. 천룡이는 먹는둥 마는둥 하고 인차 술을 놓았다.

다음 날 아침이였다.

천룡이가 학교에 나왔을 때 명길이는 깜짝 놀랐다. 웬 일인지 그의 오른편 눈언저리에 시퍼런 멍이 들었기 때문이다.

《천룡아 웬 일이야?》

명길이가 근심스러운 눈초리로 멍이든 자리를 바라 보았다. 천룡이는 한숨을 쉬더니

《정주'간에 찧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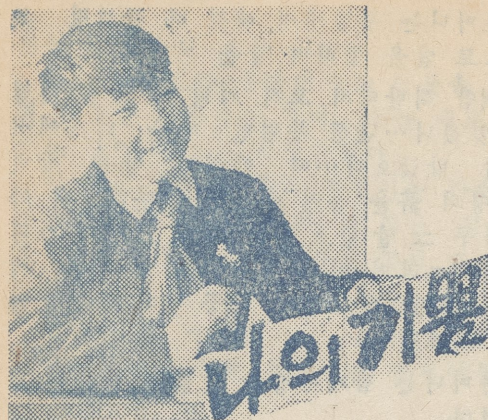
하고 힘 없이 말하였다.

천룡이는 온 종일 무언가 생각에 잠겨 침울해서 앉아 있었다. 명길이가 웬 일이냐고 물어도 그는 별로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명길이는 문득 략도와 무슨 관계가 있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이른 새벽에 달려 온 일이며, 몹시 헤뎀비던 일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그러나 별로 이렇다 할 판단을 내릴 수는 없였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천룡이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걱정이나 슬픔이 있는 게 틀림 없다는 생각이였다.

(다음 호에 계속)

조국에 돌아 온 기쁨만 해도 큰데 전국 학과 경연 대회에 참가해서 1 등까지 하게 되니 이 기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번에 이 영예를 지니게 된 것은 선생님과 동무들의 덕택입니다. 조국에 돌아 왔을 때에는 우리 말도 변변히 못 하던 나를 동무들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도와 주었습니다. 이 번에만 해도 우리 학교에 우수한 최우등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나를 학과 경연 대회에 참가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선생님과 동무들의 사랑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해야 되겠다고 굳게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 등의 자랑을 지니게 되였으니 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조국에 돌아 온 기쁨이 더욱 커집니다.…

이 번에 1 등의 영예를 지니고 나니 더욱 느낀 것은 일상적으로 학습에서 의문 나는 점을 절대로 남겨 두지 말며 어떤 것이건 배운 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 가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나는 지난 날에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번 물리과 경연에서 4 번과 5 번 문제를 내가 그다지 애쓰지 않고 풀 수 있은 것도 그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4 번은 일정한 물의 량을 보존하는 장치를 고안하라는 문제였고 5 번은 경사면에서의 효률을 실험하는 방법을 쓰라는 문제였는데 나는 두 문제 다 힘 들이지 않고 답을 썼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내가 실험 실습들을 통해서 머리 속에 똑똑히 그 원리를 기억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수나 물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나는 배운 공식이나 법칙을 일상 생활에 리용하여 그를 찾아 보기 위해 힘을 씁니다. 어떤 원리나 법칙을 하나 배우고 나면 길을 걸으면서도, 집에 돌아 가서도 그 원리를 실지로 관찰하며 실험해 볼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지만 뻐스를 타고 가면서 관성의 법칙을 연구한다던가, 자동 하차기가 짐을 부리우는 것을 보고 파스칼의 법칙을 다시 한 번 머리 속에서 정리해 보는 등 일상적으로 배운 것을 새겨 가며 생활합니다.

나에게는 《학습의 열쇠》라고 이름을 붙인 수첩이 있는데 이 수첩에는 문학에서 배운 어려운 어휘들과 함께 대수의 공식들과 물리의 법칙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는 한편 실험 실습과 관찰, 견학, 과외 독서를 통하여 얻은 새로운 지식들을 차례차례로 적어 넣습니다. 내가 최우등생의 영예를 간직해 오는 것도 이 수첩의 도움이 큽니다.

이 번 학과 경연 대회에 참가하고 나서 내가 좀 아수하게 생각하는 것은 배운 것을 알고 넘어 가기 위한 학습 태도는 좋았지만 방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알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그것입니다. 4 번과 5 번 문제도 더 좀 깊이 있게 공부했더라면 훌륭한 답을 쓸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단순한 답이 되여 버렸습니다.

나는 이 번 학과 경연 대회를 계기로 배운 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 가는 학습 방법을 더욱 튼튼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 실험 실습을 더욱 자주 하는 한편 직접 자기 손으로 실험 실습 기구를 많이 만들어서 동무들의 학습에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평남도 남포시 서흥 중학교
중등반 2 학년 김 승길

단편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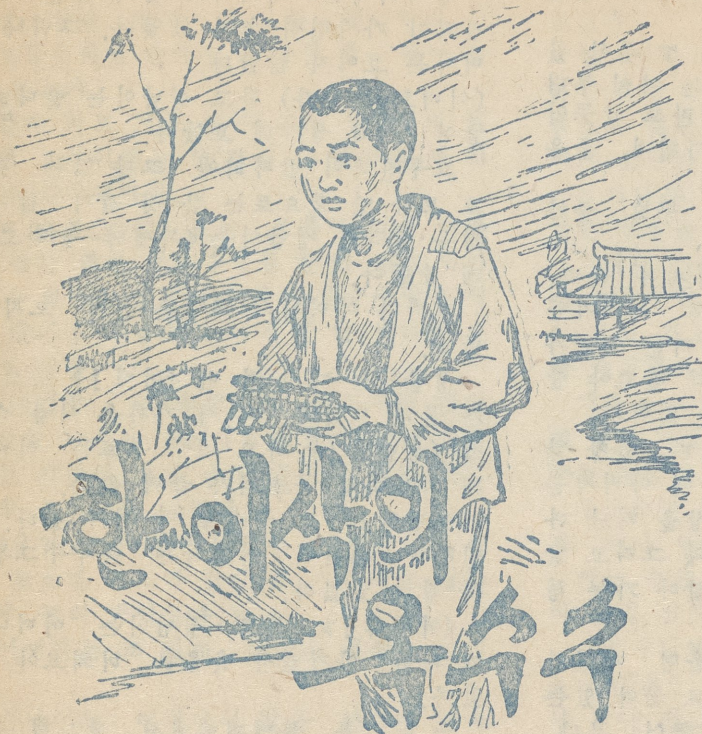
주 순　　그림 김 성엽

평남땅의 늦은 봄날이면 더위가 한창이건만 마을의 집들에선 모두 거적문을 닫아 맨 채 조용하다.

논'벌은 넓지만 들에도 일 나온 사람들이라곤 별로 보이지 않는다.

성남이에게 있어서 그것은 별로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였다.

왜냐 하면 마을 농민들은 지난 가을부터 굶는 것이 보리'고개 때부터는 더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 농민들은 거개가 굶어서 집안에 척척 들어 누워 있는 터이다. 모내기 때가 다 지나도록 들로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다.

늦은 봄날이다. 산모퉁이 돌각담 우에 서 있는 장승도 맥이 진하여 길게 목을 빼든 것만 같이 보인다.

성남이는 장승이 서 있는 돌각담 앞을 지나 산'등성이로 오르는 오솔'길에 접어 들었다.

오솔'길 량 옆에는 개나리꽃이 여기저기 피여 있다.

성남이는 개나리꽃 몇 송이를 꺾어서 고이 간직하면서 다시 산'등성이로 오르기 시작했다.

단숨에 산'등성이까지 올라 선 성남이는 돌아서 마을을 내려다 본다.

이영이 낡아서 까매진 움막들이 한눈에 굽어 보인다.

그 숱한 움막들을 호령이나 하는 것처럼 최 지주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마을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다.

그 기와집에 눈이 닿은 성남이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몸이 오도도 떨려지는 것을 느낀다.

지난 밤에도 성남이네 웃집 삼돌이네는 굶다 못해 양재'물을 타 마시고 여섯 식구가 한꺼번에 생지옥 같은 남조선을 영영 등지고 말았다.

성남이는 어리긴 하지만 그런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 하는 것이다.

울타리도 없는 저이 집 마당 구석에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성남이는 개나리꽃을 안고 다시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다가 다복솔이 무둑히 서 있는 곳에 멈춰 섰다.

성남이 앞에는 아직 잔디 떼도 씌우지 않은 채 빨간 생흙 그 대로인 무덤이 하나 있다.

무덤 앞에 반듯이 놓은 돌판 우에는 말라서 쪼골쪼골해진 옥수수 한 이삭이 있다.

성남이는 무덤 앞에 개나리꽃을 놓고 무릎을 굽히고 앉는다.

《어매야! 어매야!》

성남이는 어머니를 목이 메이게 부

론다.

무덤 속에는 성남이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것이다.

《어매야, 개나리꽃이 폈어, 또 봄이 왔어, 어매야 응.》 하고 성남이는 마치 무덤속의 어머니를 불러 일으키기라도 할듯이 무덤 우의 생흙을 허비더니 마침내 울음을 터치고야 만다.

《어매는 왜 우리만 남겨 두고 돌아갔나?》

성남이는 그만에야 몸부림치며 운다.

성남이가 흘리는 그 아리고 쓰리기만 한 눈물 방울방울은 그 대로 미군 놈들과 지주에 대한 미움과 원쑤를 꼭 갚고야 말겠다는 맹세의 눈물이기도 한 것이다.

성남이는 지금 열 네 살이다. 한창 학교에 다닐 나이건만 다섯 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작년에 세상을 떠난 다음부턴 어린 누이 동생 옥이와 그리고 할머니까지 셋이서 죽지 못해 살아 가는 형편에 있다.

어머니의 무덤을 허비며 울던 성남이는 무덤 앞 돌판 우에 그 대로 놓여 있는 마른 옥수수 한 이삭을 집어 들어 본다.

그 옥수수는 지난 해 여름 어머니가 돌아 간 이튿날에 성남이가 가져다 놓은 것이다.

성남이는 이젠 아주 말라서 알이 빨개진 옥수수 이삭을 두 손 우에 놓고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이를 앙물고 몸을 오도도 떤다.

그 옥수수 한 이삭에는 그만큼 가슴 아프고 원통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 ×

그것은 성남이가 열 세 살 때인 지난 해 여름철에 있은 일이다.

성남이 어머니는 옥수수밭 김을 매다가 깊은 이랑 속에 주저 앉은 채 허기증을 참지 못해 더는 일어 날 수 없게 되였다.

어머니는 옥수수그루를 꽉 잡고 몇 번이나 일어 나려고 했으나 다리가 떨리여서 그만 주저앉은 자리에서 해를 지우고 말았다.

밤은 점점 어두워졌으나 어머니는 집에 돌아 오지 않았다.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성남이는 더는 그 대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옥수수밭으로 나갔다.

밭머리에는 어머니가 벗어 놓은 고무신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을가) 하고 성남이는 밭머리에 굳어 선 채 생각해 보았다.

고무신짝이 밭머리에 그냥 있는 것으로 보아 딴 곳으로는 간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생각한 성남이는 《어매야—》 하고 크게 불렀다.

그러나 어머니의 대답은 들려 오지 않았다.

성남이는 다시 한 번 《어매!》 하고 크게 불러 보았다. 그 때 가까운 이랑 속에서 《성남아!》 하고 마주 부르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 왔다.

성남이는 그 곳으로 막 뛰여 갔다. 기진하여 쓰러진 어머니는 옥수수그루를 꽉 잡고 있었다.

《어매야!》 하고 성남이는 어머니에게 와락 안기면서 울음을 터치고야 말았다.

두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흐느껴 우는 성남이 잔등을 쓰다듬어 주는 어머니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다.

《성남아, 너 얼마나 배 고프겠니?》 하고 어머니는 오히려 성남이가 저녁도 먹지 못 하고 배고파 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였다.

《어매, 난 배 안 고파. 난 아까 개울에 나가서 청개구릴 잡아 먹었어.》

머리 우엔 반달이 흐르고 있었다. 반달도 생지옥 같은 남조선 천지가 슬퍼서 울고 있는 것만 같이 보이였다.

《성남아, 집에 가자. 할머니가 기다리겠다.》

어머니는 성남이의 부추김을 받아 겨우 일어 섰다.

《네가 안 왔드면 내사 그만 이 자리에서 죽을번 했구나.》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걷기 시작하였다.

밭머리까지 나온 어머니는 고무신짝을 찾아 신었다.

《성남아, 인젠 옥수수알이 맺히는 것 같더라. 이제 보름만 지나면 풋옥수수를 따

먹게 된다.》

이렇게 말하던 어머니는 다시 돌아 서서 옥수수밭을 한참이나 보는 것이였다.

보름이라면 아직도 열 다섯 밤을 자야 하지 않는가.

풀과 겨로 겨우 살아 오는 성남에게 있어서 보름이라는 날'자는 15 년만큼 먼 것 같이 생각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름만 이를 앙물고 참아 내면 풋옥수수를 한 번 실컷 먹어 볼 수 있다는 희망이 떠올라 옥수수밭을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바라다 보기도 했다.

《어매야, 이 옥수수도 최 지주네 하고 절반씩 나눠야 하나?》 이렇게 묻는 성남이는 제땅이 없이 소작 농사를 짓는 것이 매우 분하기만 하였다.

《말이 반작(절반 나누는 것)이지 다 지어 놓으면 모조리 앗아 못 가서 배를 앓는 지주 놈의 속이란다.》

어머니는 또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성남이는 어머니의 팔을 단단히 잡고 집까지 오면서도 줄창 풋옥수수에 대한 생각만 했다.

그러나 성남이에겐 희망보다 더 큰 근심이 생기였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 후로 아주 병 들어서 꼼짝 못 하고 눕게 되였으니 어린 성남의 슬픔은 더욱 컸다.

미음 한 술도 약 한 첩도 못 대접하는 것이 가슴 아프기만 했으나 어찌 할 도리가 없였다.

성남이는 날마다 들에 나가 풀을 뜯어다간 소금물에 끓여서 어머니에게 대접하였으나 앓는 어머니의 입에 풀음식이 먹힐 리가 없였다.

어머니는 그런 풀음식을 한 술 뜨고선 마른 입술을 꼭 깨물고 마는 것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성남이는 어머니가 모르게 옥수수밭으로 달려 나갔다. 옥수수알이 백인 것으로 몇 이삭 따다가 어머니에게 대접하고 싶었던 것이다.

개울을 하나 지나서 옥수수밭으로 급하게 걸어 가던 성남이는 그만 걸음을 딱 멈추고 말았다.

옥수수밭 한복판으로 미군 고사포차가 세 대나 질러 가고 있지 않는가.

미군 놈들이 전쟁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 없였다.

뒤꽁무니에 고사포를 단 미군 트럭은 옥수수'대를 사정 없이 깔아 눕히면서 그냥 지나 가고 있었다.

성남이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옥수수밭으로 달리였다.

마치 미군 고사포차를 두드려 부시기라도 할듯이 가슴을 내밀고 달리였으나 밭머리까지 달려 온 성남이는 그만 푹 주저앉고야 말았다.

미군 고사포차가 지나 간 옥수수밭은 마치 큰 황소가 싸움하고 난 자리처럼 뭉개여져 있었다.

이른 봄부터 어머니의 손끝이 닳아 피가 나도록 돌을 줍고 호미로 뚜지고 씨를 붙인 옥수수밭이다.

한 대의 옥수수에도 어머니의 피땀이 스며 있는 옥수수밭이 아닌가.

다 쓰러진 옥수수'대를 한 대씩 바로 잡아 세우는 성남의 두 눈에선 승냥이보다 더한 미군 놈들을 미워하는 증오의 불'길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아주 못 쓰게 부러진 대에선 이삭을 따냈다. 그렇게 딴 이삭은 퍼그나 많이 되였다.

그 중에서 성남이는 알이 약간이라도 맺힌 이삭은 따로 골라 냈다.

성남이는 입었던 베적삼을 벗어서 옥수수 이삭들을 싸 안고 돌아 섰다.

굶다 못해 병 들어 누운 어머니에게 옥수수를 삶아서 보약처럼 대접하리라는 생각으로 걸음을 재우쳤다.

발머리를 돌아서 달구지'길에 나섰을 때였다.

낚시질 나오는 최 지주 놈과 딱 마주치였다.

웃'통을 벗은 성남이는 옥수수이삭을 안은 채 꼽빽 경례만 하고 지나 가려 하였다.

최 지주 놈은 베적삼을 싸 안은 성남이를 지켜 보고 있었다.

《너 베적삼에 싼 것이 뭐이냐?》

최 지주 놈의 목소리는 높았다.

《저 저 옥수수 이삭이예요.》

성남의 대답 소리는 가늘고 떨리였다.

《뭣이?》

최 지주 놈은 한 손으로 베적삼을 와락 잡아 채는 것이였다.

그 바람에 옥수수 이삭들은 땅'바닥에 쏟아지고 말았다.

《요 쥐새끼 같은 놈, 이게 뉘 옥수수이기에 함부로 따 가느냐?》

최 지주 놈은 주먹으로 당장 성남의 귀뿌리를 쥐여 박을듯한 기세였다.

성남이는 (우리 어머니가 그처럼 피땀 흘려 지은 옥수수를 왜 우리가 못따 간단 말인가. 내 손으로 지은 옥수수를 왜 마음 대로 못 따다 먹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최 지주 놈을 바라 보고 웨치듯 말하였다.

《이건 우리 옥수순데요. 미군 고사포차가 깔아 눕힌 대에서 딴 거예요.》

《이놈 너희네 옥수수가 어디 있단 말이야, 너희네 밭이 어디 있단 말이야.》

발 소리가 나자 성남이는 모든 것을 짐작하게 되였다.

(그렇지만 농사 지은 건 어머니가 아니였던가.

반작이긴 하지만 제가 농사 짓고도 바심이조차 못 해 먹는단 말인가.

그것은 못 쓰게 된 대에서 딴 익지도 않은 이삭이 아닌가.)

성남이는 지주 놈이 더욱 미워났다.

《이놈, 어른을 고런 눈으로 쳐다보면 못 쓰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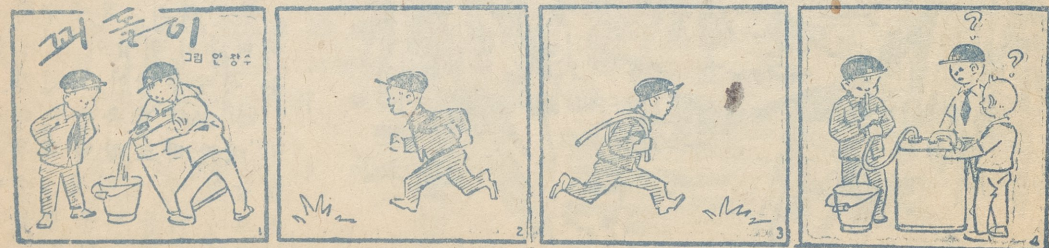
최 지주 놈은 땅에 떨어진 옥수수 이삭을 발로 툭툭 차서 한데 모으면서 《자 이걸 줘 담아.》하고 고함을 질러대는 것이였다.

성남이는 주어 갖고 가라는 뜻인 줄로만 알고 더 말 없이 그것을 다시 베적삼에 주어 담았다.

그러나 최 지주 놈은 성남이를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것이였다.

성남이를 자기 집까지 다리고 간 최 지주 놈은 돼지우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야, 그걸 여기다 쏟아 놓아라!》

성남이는 너무도 분하고 기가 막혀서 옥수수를 안은 채 최 지주 놈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우리 어매가 앓아서 그래요. 이 옥수수를 대접해야 우리 어매는 살 수 있어요.》

성남의 두 눈에선 애원하는 듯한 눈물이 방울방울 쏟아지고 있었다.

《허, 맹낭한 놈, 너 어매보다 우리 돼지가 더 귀하다. 허허 그 놈.》

최 지주 놈은 한 손으로 성남이가 안은 베적삼을 와락 잡아 채는 것이였다.

옥수수 이삭은 돼지우리 안에 쏟아졌다.

최 지주 놈네 돼지들이 모여 들어 풋옥수수를 와작와작 씹어 먹고 있었다.

성남이는 그만 울고 돌아 섰다. 총이라도 있었으면 최 지주 놈의 가슴에 대고 팡쏴서 눕혀 놓고 싶었다.

최 지주 놈네 대문을 나선 성남이는 베적삼을 툭툭 털어 입었다.

적삼 주머니 속에 옥수수 한 이삭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성남이는 한 이삭만이라도 어머니에게 대접해야겠다고 집으로 달려 갔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때가 늦어지고 말았으니 그 날 성남이는 옥수수 이삭을 꽉 쥔 채 얼마나 울었던가.

성남의 어머니는 그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이튿날 앞산 등성이에 어머니를 묻은 다음 성남이는 무덤 앞 돌판 우에 그 한 이삭의 옥수수를 놓았다.

《어매! 옥수수를 잡사요.》하고 성남이는 목 메인 소리를 하였다.

그 말에 할머니와 관을 메고 왔던 마을 사람들은 돌아 서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성남이는 어머니를 부르고 또 불렀다.

풋옥수수마저 빼앗아 자기 집 돼지에게 먹인 최 지주 놈이 한없이 미워났고 따라서 원쑤 갚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가슴 속에서 불'기둥처럼 타번지는 것이였다.

《성남아! 울지 말아, 이게 다 그 미국 놈들과 지주 놈들 때문이다. 우리 힘을 합쳐 네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 주마.》

관을 메고 온 이웃집 순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였다. 그 말에 마을 농민들은 《지금 당장 내려 가서 최 지주 놈을 때려 죽입시다.》하고 주먹들을 내흔들고 있었다.

성남이는 그 소리에 기운을 얻고 일어섰다.

승냥이 미국 놈과 악독한 지주 놈들을 쳐 없앤다면 어린 몸이지만 맨 앞장에 서고 싶었던 성남이다.

그런 일이 있은 때로부터 철은 바뀌여 또 봄이 온 것이다. 오늘 다시 어머니의 무덤 앞에 찾아 온 성남이는 마른 옥수수 이삭을 두 손에 쥐고 부르르 몸을 떤다. 옥수수 이삭 우에 떨어지는 눈물 속엔 미국 놈과 지주 놈을 끝없이 미워하는 성남의 불붙는 마음이 그 대로 타번지고 있는 것이다.

다복솔 가지 속에선 소쩍새가 운다. 성남이는 그 옥수수 이삭을 무덤 앞에 놓고 일어 섰다.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원쑤에 대한 불붙는 증오를 어린 가슴에 꽉 품고 일어선다.

액체의 압력을 리용하여 이렇게 물을 뽑을 수 있거든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나 인민 경제의 어떤 부문을 물론하고 물을 쓰지 않는 곳이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 경리, 수력 발전소, 하천 운수, 공장 등에서 물은 그야말로 중요한 역할을 놉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알곡을 많이 생산하자면 무엇보다도 논밭에 물을 넉넉히 대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당과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물 자원을 잘 리용하며 한 방울의 물이라도 거저 바다로 흘려 보내지 않도록 곳곳에 수력 발전소를 만들고 관개 시설들을 훌륭히 해 놓았습니다.

특히 벼 농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관개 시설을 잘 하는 것은 알곡을 생산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봄이면 가물고 여름에 장마가 지는 우리 나라에서는 논과 밭에 관개 체계를 세우고 수재와 한재를 미리 막아내는 일은 농사에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오래 전부터 많은 힘을 들여 큰 관개 공사와 제방 쌓기, 치산 치수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연풍 저수지, 서흥 저수지 등을 비롯하여 천 이백 개의 저수지와 7천 800 개의 양수장이 건설되였고 7만 5천 리나 되는 수로가 논밭에 거미줄처럼 늘어지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은 홍수와 가물을 모르며 억년 풍년 드는 농촌으로 되였습니다. 이처럼 물을 인민들의 생활에 리롭게 리용하는 일은 우리 나라와 같은 사회주의 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나라들이나 미제나 그 앞잡이 도당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우리 나라 남반부 같은 데서는 이런 자연 개조를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귀중한 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더 많은 물이 강과 기름진 논밭에 흐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가요.

우리들은 산과 들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나무를 많이 심으면 조국의 산과 들을 더욱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막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에 나무가 많으면 비'물이 나무'잎들에 많이 머무르며 또 락엽이나 나무 뿌리를 통해 땅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리하여 비'물이 땅 우로는 적게 흘러 내려 가며 땅 속에 스며 들어 간 물은 조금씩 오래오래 흘러 가므로 강에는 사철 고르게 물이 흘러 홍수도 가물도 방지하며 자연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항상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에서 많은 돈과 자재를 들여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관개 시설물을 잘 애호 관리하여 물이 허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방'둑으로 다녀서 제방을 무너뜨린다거나 관개 수문을 장난해서 고장내거나 수로에 오물이나 돌 같은 것들을 넣어 못 쓰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락 주변에 있는 수로의 보호 바주나 보호망을 마스지 말고 잘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관은 물이 개울과 도로 혹은 철도 밑으로 건너 가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나무'가지나 돌 같은 것을 집어 넣지 말아야 합니다. 잠관에 돌이나 나무'가지 같은 것이 걸리면 흙이나 모래가 들어 가서 잠관이 메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잠관이 못 쓰게 되며 물이 제때에 논밭에 흘러 들지 못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양수장을 애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수장에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귀중한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양수장에 있는 기계들에 함부로 손을 댄다거나 양수기가 설치된 곳에서 장난을 하여 돌이나 흙 혹은 풀들이 기계에 들어 가면 양수기에 고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논과 밭에 제때에 물을 댈 수 없으며 양어장에도 물을 제대로 댈 수 없습니다. 물이 제대로 안 가면 곡식이 자라는 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물이 제대로 논밭에 흘러 들게 하자면 수로'둑이나 제방 등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로'둑이나 제방에다 피마주, 해바라기, 나무 등을 심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수로'둑, 제방 등에 나무나 피마주, 해바라기 같은 것을 심으면 다져진 제방에 식물들의 뿌리가 깊이 들어 가서 땅이 문문하게 되여 비가 오면 그리로 물이 스며 들어 제방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의 잔디풀을 밟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일이 많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애써서 건설해 놓은 관개 시설들을 잘 리용하지 않거나 많은 전기와 돈을 쓰면서 수천 리 먼 곳에서 끌어 온 물을 잘 리용하지 않고 랑비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물을 한 방울도 랑비하지 말고 다 논과 밭에 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은 원수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가 애써 건설해 놓은 관개 시설을 잘 애호하여야 하며 한 방울의 물이라도 헛되게 흘려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500만 톤 알곡 고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주 창연

소년단 반장

《반은 분단 앞에 나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반 모임을 조직하며 반원들이 소년단 생활에 옳게 참가하도록 방조한다.》
(조선 소년단 규정 제 4 장·제 10 조에서)

소년단 반장은 분단 위원회의 지도 밑에 매 시기 당과 정부에서 내 세우는 일과 단, 분단 총회에서 하자고 결정한 일들을 훌륭히 실천하도록 자기 반의 모든 활동을 조직하고 집행하여 단과 분단 위원회 사업을 힘껏 돕는다.

평북도 염주군 부라 중학교 김 옥순 동무네 반 사업은 이런 데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김 옥순 동무네 반은 단과 분단 총회에서 하자고 결정한 일을 어김 없이 실천하기 위하여 한 주일에 한 번씩 반 모임을 꼭꼭 가진다. 반 모임에서는 자기들이 진행한 일과 앞으로 할 일을 의논하고 누구나 빠짐 없이 분공을 준다. 그 다음에는 그를 잘 실천하도록 서로 돕고 이끌어 항상 자기 앞에 맡겨진 과업을 훌륭히 실천한다.

또한 학교에서 돌아 오면 반실에 모여 원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학습도 하며 토론회, 발표회, 이야기 모임, 독보회 등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일들을 조직하여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혁명 정신과 아동단의 슬기로운 모범을 배우고 본받아 다 같이 조국 앞날의 훌륭한 일'군이 되기 위해 힘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반장들이 할 일을 알아 보기로 하자

(1) 반장들은 매 시기 당과 정부에서 내 세우는 일과 단, 분단 총회에서 하자고 한 일들을 제때에 실천하도록 자기 반 소년단원들의 앞장에 서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반장들은 자기가 먼저 이 모든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소년단 규정과 의무를 잘 알고 동무들을 가르쳐 주어 모두다 소년단원의 의무를 똑똑히 알고 자각적으로 소년단 생활에 참가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또한 단, 분단에서 주는 과업을 어김 없이 실천하도록 도와 주며 한 달에 두 번씩 진행되는 《분단 토론회》와 《혁명 전통 연구 모임》을 비롯한 분단 활동에 참가할 준비를 잘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2) 반장은 자기 반 소년단원들이 학습 규률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모두다 우등, 최우등생이 되도록 서로 도우며 힘써야 한다. 그리고 자기 반 소년단원들이 각종 연구 소조들과 《교마 7 개년 계획》 활동에 잘 참가하여 배운 지식을 넓고 깊게 다지며 쓸모 있는 지식으로 만들도록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일들을 조직하며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힘 쓰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돕는 일도 조직한다.

(3) 반장은 자기 반 소년단원들이 항상 의모를 단정히 하며 례절이 바르고 위생을 잘 지키며 공중 도덕을 모범적으로 지키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4) 반장은 자기 반 소년단원들이 노래와 무용, 유희를 배우며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도록 하며 분단에서 조직하는 반별 써클 경연회에 참가할 준비를 잘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5) 반장은 자기 반 소년단원들이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체육을 즐기며 인민 체력 검정 《소년급》에 합격하도록 도와 주며 분단에서 조직하는 반별 체육 경기에 참가할 준비를 잘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특히 남자들은 달리기와 기계 체조, 녀자들은 달리기와 예술 체조에 모두다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년단 반에서는 경험 교환회, 토론회, 발표회, 이야기 모임과 상봉 모임, 시 랑송 모임, 그림 그리기, 작문 짓기, 독보, 야유회, 등산, 행군 등 재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직할 수 있다.

소년단 반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반 계획은 반 모임에서 한 주일 동안 집행한 반 생활을 총화하고 다음 주에 진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의논하여 세워야 한다.

오늘 당과 정부에서 내세운 일은 무엇이고 분단 위원회에서 받아 온 과업은 무엇인데 이것을 잘 실천하자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일을 더 하는 것이 좋겠는가? 등을 의논하고 토론된 내용에 근거하여 반에서 할 일을 힘에 알맞게 요일별로 짜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자기 반 소년단원들의 취미와 힘에 알맞게 모든 동무들에게 골고루 분공을 주고 어김 없이 실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을 실행한 다음에는 총화를 제때에 해야 한다.

소년단 반장은 하루의 반 생활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소년단 반장은 반 생활을 《하루 생활표》에 의하여 재미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소년단 반의 하루 생활은 아침 체조와 달리기로부터 시작한다.

소년단 반장은 아침 체조가 끝나면 반 사업 계획에 따라 그 날 반에서 할 일과 단, 분단에서 조직되는 일들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알려 준다.

그리하여 모든 동무들이 하루의 생활 계획을 똑똑히 알고 반 생활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돌아 오면 (오후반은 등교하기 전) 반실에 모여 그 날 학습과 단, 분단 생활 참가 정형을 간단히 총화한 다음 그 날 배운 학과를 복습하며 반 사업 계획에 의하여 토론회, 발표회, 이야기 모임, 시 랑송 모임, 작문 짓기, 그림 그리기, 어린이 방송 듣기, 독보회를 비롯한 노래, 무용 보급과 체조, 유희 등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일들을 조직하면서 분단 활동에 참가할 준비를 한다.

또한 학습의 여가를 리용하여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돕고 나라에 유익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자기 맡은 일들을 그 날 그 날 꼭꼭 실천해 나가도록 한다.

소년단 반장은 하루의 반 생활이 끝나면 전체 반원들에게 그 날 한 일과 못한 일을 알려 주면서 잘한 것과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총화하고 해여진다.

그리하여 모든 동무들이 하루의 생활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똑똑히 알고 다음 날 생활에서 잘된 것을 살려 부족점을 고치도록 한다.

이리하여 소년단 반장들은 단과 분단 앞에 지닌 무겁고도 중요한 책임을 어김 없이 실행하도록 하여 소년단원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자기 반 동무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

홍 길 동 (제5회)

신 구현

52) 그 넓은 마당이 삽시간에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누군지 얼굴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달이 중천에 높이 떠서 밝게 내려 비칩니다. 이윽고 높은 단 우에 길동이 올라 섰습니다.

사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들을 하고 길동을 우러러 봅니다. 달'빛을 머금어 둥그스럼하고 서글서글한 그 얼굴이 유난히도 거룩해 보입니다.

53) 《여러분!》

길동은 드디여 입을 열었습니다. 전라 감사를 쳐야만 되겠다는 길동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많은 사람들을 흥분케 하였습니다.

도화동만 생각하고 바깥 세상을 잊는다던가 우리들이 먹고 입고 사는 재미가 있다 해서 바깥 세상의 하구 많은 굶주리고 헐벗은 부모 처자들의 걱정을 잠시도 잊을 수 없다고 길동은 웨쳤습니다.

《…간악한 관리들과 부자 놈들을 때려 부시잖고는 우리들은 소위 도적의 루명을 벗지 못 할 것이며 백성들은 억압과 착취의 멍에를 벗어 던질 수 없을 것이요…》

54) 길동의 말이 끝나자 나도 나도 이 번 싸움에 꼭 참가시켜 달라고들 떨쳐 나섰습니다.

밥은 열 곳에 가 먹어도 잠은 한곳에서 자랬다고 고향의 부모 처자들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으니 이 번 싸움에 앞장을 서게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 다섯에 난 칠석이라는 소년은 자기 고향은 전주 고부군이고 땅도, 집도, 세간도 몽땅 지주 놈이 빼앗았고 온 집안이 도적의 루명을 쓰고 전주 감영에 잡히여 부모는 매맞아 죽고 나머지 식구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 번 싸움에서 자기 손으로 부모의 원쑤를 갚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55) 《활빈당》 영웅 호걸들은 장수 치백이 령솔 하에 한두 사람씩 류랑민으로 가장해 가지고 전주를 향하여 도화동을 떠나 약속한 날'자를 어기잖고 전주에서 십 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고덕산 북쪽 기슭의 만경대에 집결하였습니다. 기암 절벽에 로송들이 우거지고 보리수나무, 분디나무, 갈나무가 온 산을 덮고 있습니다. 멀리 서해 바다가 가물가물거리고 눈 아래로 전주성 안이 손'금 같이 보입니다.

56)길동이는 칠석이를 앞세우고 홍갑이 거느린 도화동 영웅들 사이에 끼여 역시 같은 날 전주에서 오리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건지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푹 쉬라 분부하고 길동은 중으로 가장하고 칠석이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 가서 정찰하였습니다.

감영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야단 법석이였습니다. 알고 보니 후원에 있는 루각에서 전라 감사 생일 잔치가 사흘 동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드니 마침 잘 됐다!》

길동은 부랴부랴 건지산으로 발'길을 되돌렸습니다.

57) 길동은 건지산에 도착하자 홍갑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첫째, 어둠을 타서 하나씩 흩어져 들어 가서 북문 밖에 불을 지를 것.

둘째, 북문에 방을 붙이고 즉시 오든 길로 도화동을 향하여 떠날 것.

지시를 주고 나서 길동은 칠석이를 앞세우고 산'길로 고덕산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58)고덕산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였습니다. 저녁 노을을 머금어 성 안이 붉게 타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치백이 이하 영웅 호걸들이 길동을 반가이 맞이하였습니다.

길동은 치백에게 출발 준비를 명령하였습니다. 영웅 호걸들이 산을 내립니다. 남문으로 남문으로 흘러 들어 갑니다. 대 우에 우뚝 길동이 서서 바라 봅니다. 어둠이 짙어 갑니다. 별만이 반짝입니다. 만경대에서 해'볕이 올랐습니다.

59) 홍갑이 지휘 밑에 도화동 영웅 호걸들은 북문 밖에 불을 질렀습니다. 고래등 같은 집이 활활 타오릅니다. 전라 감사 세째 첩의 집입니다.

련사를 진탕망탕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던 감사는 불이 났단 말을 듣고 소스라쳐 두 발을 동동 구르며 «불을 당장 끄라!»고 호통을 칩니다.

관속들이 성 안 사람들을 휘몰아 북문으로 내닫습니다.

«백성들을 못 살게 구드니 천벌을 받는구나!»

어둠 속에서 원한의 목소리가 들려 옵니다.

60) 성 안에 흘러 들어 북문 밖에서 불이 일기만 기다리던 치백의 일행은 텅 빈 감영으로 달려 들어 옥문을 열고 죄 없이 갇힌 백성들을 놓아 주고 창고들을 열어 곡식과 돈과 무기를 몽땅 빼앗아 가지고 남문으로 유유히 산'길을 타고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북문 밖 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영웅 호걸들의 앞길을 밝혀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61) 이튿날이였습니다. 온 한 밤을 불을 끄고 나니 기진맥진해서 관속들은 점심 참에야 출근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생겼습니다. 창고란 창고들을 몽땅 털어 간 것이 아닙니까.

감사에게 보고하니 성 안 백성 놈들의 짓이라고 노발대발하면서 당장에 몽땅 잡아 들이라는 것입니다. 관속들은 성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관속들의 행패 때문에 온 성 안은 물 끓듯 하였습니다.

북문에 붙은 방을 보고서야 좀 식어 갔습니다.

«전라 감사 탐욕스럽고 포악스러워 백성들이 살'길을 잃고 방황하니 차마 볼 수 없는 참상이다.

가난한 백성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는 우리들은 북문에 불을 지르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려 주기 위하여 창고를 털어 가노라.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
활빈당 행수 홍 길동»

62) 방을 보고 나서 감사는 펄쩍했습니다.

감사는 관군을 동원하여 «도적»을 잡으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관군은 «활빈당» 영웅 호걸들을 급하게 추격하였습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도적»의 종적을 대라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63) «활빈당» 영웅들은 고덕산, 미이산, 중대산 산'줄기를 타고 지리산을 향하여 가다가는 부락에 내리여 돈과 곡물을 풀어 가난한 백성들을 돕고 포악스러운 지주가 있으면 처단하고 재물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눠 주고 «활빈당»과 그 행수 홍 길동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해인사를 털던 홍 길동이 아니냐고 하면서 백성들은 속으로 은근히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였으며 그들의 행처를 어느 누구에도 대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편집부는 이 번에 평남도 상원군 상원 중학교에 나가서 동요, 동시, 작문 짓기 대회를 가지였습니다.

여기서는 학습과 소년단 생활, <꼬마 7 개년 계획 활동> 등을 내용으로 한 많은 작문들과 동요, 동시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 《꼬마 7 개년 계획》 활동의 하나인 농사'일을 돕는 내용의 동요, 동시, 작문 몇 편을 다음에 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년 선전 예술대원들은 협동 농장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찾아 갔습니다.

뜨락또르의 요란한 엔징소리도 좋고 온 벌판에 울려 퍼지는 풍악소리, 노래 소리도 흥겹습니다.

모내기를 일찍 끝낸 우리 마을 앞벌은 푸르고 고운 천을 한 벌 깔아 놓은 것 같습니다.

벌써 작업반 아저씨들은 살초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기계화의 나라, 화학화의 나라!

일'손은 날마다 흥겨워지고 오곡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고향 마을의 앞벌로 언제나 찾아 나오는 우리 소년 선전 예술대원들의 가슴은 자꾸만 부풀어 오릅니다.

《올해 알곡 증산에 힘쓰는 3 작업반 아버지, 어머니들 안녕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또 왔구나!》

아저씨들은 우리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새 힘이 나고 우리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 일'손이 흥겨워진답니다.

우리는 모판에 뛰여 들어 아버지, 어머니들의 틈에 끼였습니다.

《자, 꼬마들의 노랠 듣구 싶어 견딜 수 있어야지, 잠시 쉽시다.》

선동원 아저씨의 걸걸한 목소리에 모두들 논머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노래와 춤이 끝날 때마다 아저씨들은 박수를 치며 칭찬합니다.

영옥 동무가 맡은 회상기 이야기 차례가 되였습니다.

그는 항일 빨찌산 참가자 박 경옥 선생님의 회상기 《혁명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아래'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시더니 무연한 논'벌을 내다 보십니다.

항일 빨찌산 투사들이 피로써 찾아 준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뙈기의 땅도 없어 지주 놈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헐벗고 굶주려 오던 할아버지시니까요.

오늘은 땅의 주인, 협동'벌의 주인으로 되여 해마다 쌀독에 옥백미를 가득가득 채워 놓고 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네가 대대로 내려 오며 그처럼 바라던 세상, 기와집을 쓰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사는 세상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문제 없네.》하고 말씀하시며 할아버지는 《올농사 대풍이로세》란 노래를 부르며 선참으로 일어 서 논물을 적시며 들어 섭니다.

우리들도 옷을 걷어 올리고 논물에 뛰여 들어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을 뒤따라 모를 꽂아 가는 우리들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들은 칭찬하지요.

일은 더욱 흥겹고 힘차졌습니다.

평남도 상원군 상원 중학교
3 학년 차 옥 선

(동시)

협동방아 쿵쿵

협동 방아 쿵 쿵
전기 방아 쿵 쿵
입쌀도 찧고요
찹쌀도 찧고요

새벽부터 찧어도
밤새도록 찧어도
찧을 벼가 많대요
동네 방네 많대요

협동 방아 쿵 쿵
전기 방아 쿵 쿵
낮에도 찧고요
밤에도 찧고요

집집마다 곡간마다
쌀가마니 가득가득
협동 방아 쿵 쿵
일할수록 기쁘대요

평남 상원군 상원 중학교
중등반 3 학년 안 길 선

어서어서 실어내자

통통…빨리 달리세요
뜨락또르 운전수 아저씨
우리 학교 운동장으로
어서 빨리 가세요.

긴긴 겨울 하루 같이 우리들
한 삽 두 삽 소토를 구웠어요
저기 보이지 않아요
학교 앞에 높이 쌓은 비료'더미.

어서어서 실어 내세요
해마다 황금나락 물'결치는 협동'벌에
소년단원 우리들의
힘과 마음 담아 부은 비료랍니다.

운전수 아저씨
어서 빨리 모세요.
논'배미가 손짓하며 우리를 불러요
5백만 톤 벼낟가리 우리를 불러요.

평남도 상원군 상원 중학교
중등반 3 학년 김 성 국

속 담

△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아무리 손쉽게 리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도 그것을 리용해야 보람이 있다는 말)

△ 식은 죽 먹기
(아주 쉬운 일을 말함)

△ 소 뿔은 단김에 빼라
(일은 손 댄 김에 당장 해 치우라는 말)

(동요)

학교 가는 길

해'님도 뜨기 전 이른 아침에
순이는 자랑스레 학교로 가요
오늘은 누구보다 일찍 서둘렀다고
활개치며 순이는 학교로 가요.

어느새 동뚝'길 넘어 선 순이
발'걸음 멈추고 얼굴 붉혀요
협동'벌 멀리에서 들리여 오는
농장원들의 모내기 노래 소리 웃음 소리에.

아버지, 어머니들 재 일솜씨
새벽바람 한 논'배미 다 꽂았네
《나도 한 포기 꽂고 가자》
두 팔 걷고 순이는 뛰여 들었어요

《애야 어서 가서 공부 잘 해라》
순이가 인사하고 학교 길에 나설 때
방긋방긋 웃으며 아침 해'님 솟아요.

바삐바삐 걸으면서
순이는 생각해요.
벌써부터 이렇게 모내기를 도울 걸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 잘 할 걸.

평남도 상원군 상원 중학교
2 학년 주 승 일

☆ 현상 문제

우리 나라 지도 우에 새로 생긴 큰 저수지와 발전소들을 아는 대로 적어 보내십시오.

(흥미 있는 오락 유희)

누가 빨리 대답하는가?

이 유희는 학교에서 또는 등산, 야영지들에서 휴식 시간에 할 수 있는 재미 있는 유희다.

유희자들은 원형을 짓고 앉는다. 다음에 집행자는 력사, 지리 (다른 과목도 좋다)에서 하나의 문제를 내면서 어느 한 동무에게 손'수건을 던진다. 즉《조선에서 제일 큰 산?》그러면 이 손'수건을 받은 동무는 빨리 대답해야 한다. 즉《백두산!》다음엔 대답한 동무가 문제를 내면서 손'수건을 다른 동무에게 던진다. 손'수건은 빨리 그리고 불의에 던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유희는 계속 된다. 그리고 대답을 정확히 못 하였다든가 또는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한 동무에게는 그 답을 알려 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웃음을 자아 낼 행동을 시킬 수 있다.

년령 알아 맞히기

춘식—영자야! 네 나이에 2를 승하고 그 답에 5를 가하라. 다음 그 답에 또 5를 승해서 나온 답을 나에게 알려 달라. 그러면 나는 네 나이를 알아 맞히마.

영자—165이다.

춘식—너는 열 네 살이구나.

영자—맞혔다. 그건 어떻게 알아 냈느냐?

춘식—네가 알려 준 165에서 마지막 5를 떼버리고 남은 수'자에서 2를 감했다. 즉 165에서 5를 떼 버리면 16이 되고 16에서 2를 감하면 14가 나온다.

대수의 방법으로 증명하면 년령을 x라 하고 $5(2x+5)=10x+25$ 이고 다음 계산에서 첫단위를 떼 버리기 때문에 $x+2$로 되고 거기에서 다시 2를 감하면 x 즉 년명이 나온다.

(2호 현상 문제 해답)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까?

소년단 1962년 10호 박 성우 선생님이 쓰신《의란구의 아동단원》에서 의란구 아동단원인 리 국권 동무가 보초를 서면서 생각한 내용입니다.

2호 현상 문제 당선자

량강도 삼수군 삼수 중학교 김 이수
량강도 신파군 신파 중학교 주 재현
자강도 고풍군 고풍 중학교 김 형일
함남도 영흥군 룡흥 중학교 한 영갑
개성지구 판문군 선적 중학교 김 천두
개성지구 개성시 고려 중학교 리 정렬
평양시 성북 중학교 강 순애
강원도 원산시 부문 중학교 김 창일
황북도 사리원시 상매 중학교 서 은섭
평남도 개천군 도화 중학교 윤 농담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1963년 제 5 호 (총 163 호)
1963년 5월 3 일 인쇄
1963년 5월 10 일 발행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330225 값 25 전

답사 행군시 준비할 휴대품

①하루 행군시

㉠개별적 장비품

등산모. 수건.간단한 식사도구(식기 1~2개. 숟가락) 작은 칼과 가위. 물통. 곱부. 작은 망치. 수첩. 포충망. 식물 표본을 제작할 수 있는 종이. 필요한 량의 식량과 부식물들.

㉡집체적 장비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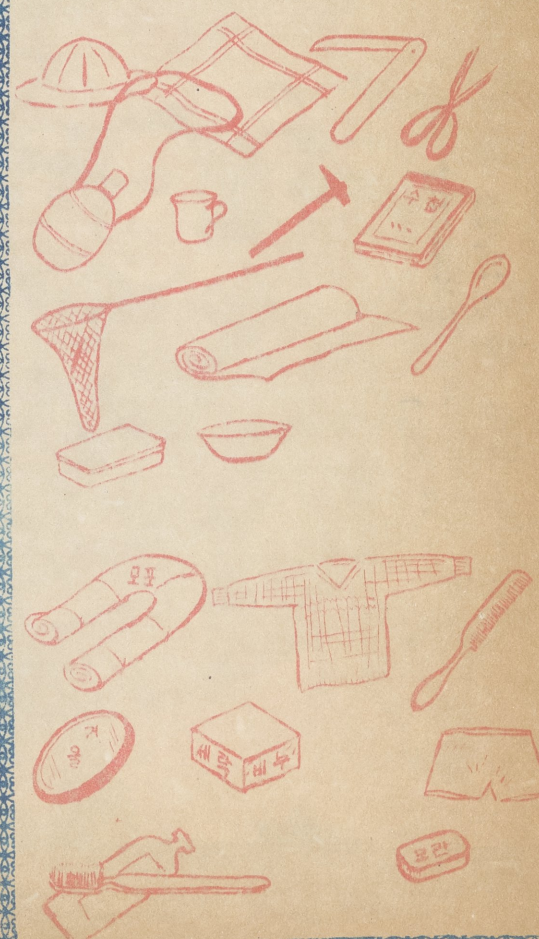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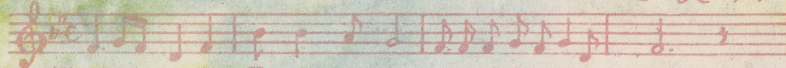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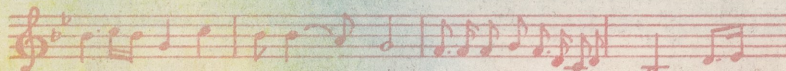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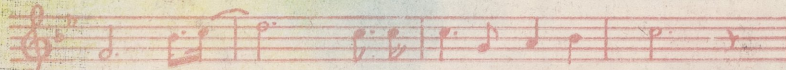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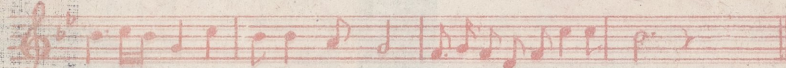
소년단 기'발. 신호기. 나팔. 바'줄. 작은도끼. 성냥. 밥통. 국자. 식도. 뽈. 배구네트. 간단한 오락 기재(하모니까. 손풍금 장기 등) 쌍안경. 지북침. 사진기. 각종직관 공작을 위한 필묵 도구(종이. 붓. 수채화. 이동 속보판.) 의약품. 시계. 곤충 및 광물 채집한 것을 넣기 위한 함.

②2~3일간 행군시.

㉠개별적 장비품

가벼운 모포. 바꿔 입을 내의. 비옷. 치솔. 치약. 화장비누. 빗. 거울. 세탁 비누등 더 첨가한다.

㉡집체적 장비품

천막. 양초(혹은 등잔). 전지. 가벼운 후라이판. 남비등을 첨가 한다.

8248 Сонендан
보람찬 우리나라
느리지 않고 희망차게
윤 복진 작사
찬 용훈 작곡
(전렴)로동— 으로 꽃이 피는 자랑많은우리나 라
어디— 가나 새희 — 망 우리가숨뛰—노— 네 아—
— 아— — 종달 새노래하 는
살기좋은협동—벌에 뜨락또르우릉—우릉 봄노래부르— 면 서
오곡— 백과 가꿔 가 자 오곡백과가꿔가 자
② (전렴)
마—갈매기 춤추늪
푸른바다 우리바다 고기떼가 웅실웅실
풍어기 휘날리면서 저바다로 달려가자
저 바다로 달려가자.
③ (전렴)
'아—불' 길 높은 용광로
무쇠강철 십고뽑아 구슬땀 맺힌자랑.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락원 꾸려가자
우리락원 꾸려가자.
Цех 1
Ул. Чайковского д.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8 1-12 8248